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 인류 역사의 가장 시기로



제35호 2009학년도 입학전형계획





# YONSEI

Library

아름다운 세상

인생의 최강 연세

# Freedom

연세는 '자유' 다!

123년의 오랜 전통, 지식한국을 선도하는 우수한 교수진,  
전 세계로 뻗어있는 동문네트워크와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들이 있기에  
배움과 실천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곳, 연세  
연세는 우리에게 '자유' 입니다.

## contents



COVER STORY

정은비(07, 언더우드국제대학, 국제학전공) / Charles Luskin(06, 언더우드국제대학, 정치외교학 전공)

02 인트로/목차 | 04 연세, The First | 06 연세, The Best | 08 세계로 가는 연세인 | 10 연세인 Essay | 12 네 꿈을 펼쳐라 | 14 Head & Heart  
16 아카라카를 온누리에 | 18 캠퍼스 스토리 | 20 Proud of you | 22 Supporting Service | 24 연세 News | 26 2009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오라!연세로 가자!세게로」 제35호 | 발행일 2008. 4. 1 | 발행처 연세대학교 입학처(02)2123-4131  
기획·디자인 designida(02)337-5682 | 사진 helio스튜디오 | 일러스트 연희정



#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위대한 리더 '연세'

- 연세의 역사는 1885년에 알렌이 세운 광혜원(廣惠院)에서 시작되었다. 광혜원은 의료 사업과 더불어 교육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교사의 자격으로 한국에 온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목사는 그 병원에서 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한 연세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끌어 왔으며 123년이 된 지금도 앞선 교육과 우수한 연구력으로 그 위상을 떨치고 있다.

**연세, 그 위대한 시작**

연세대학교가 학교의 형태를 갖추어 시작한 것은 의학교였다. 1886년에 세워진 제중원(濟衆院) 의학교는 에비슨 교장이 세브란스의 막대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병원을 확대신축하면서 그 명칭을 세브란스 병원으로 고쳤고, 1909년에 '세브란스의학교'로 개칭되었다. 한편 언더우드는 제중원 의학교에 근무하면서 교육사업에 전력하여 1886년 5월에 고아원 형태의 언더우드 학당을 만들었고, 이를 모체로 경신 학당을 세웠다. 대학설립을 염원하던 그는 1915년 오랜 준비 끝에 "조선기독교대학"을 설립하였고, 이는 1923년에 "연희전문학교"로 그 교명을 고쳤다. 일제시기를 거치며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해방 후 1946년 연희전문학교는 연희대학교로, 1947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는 세브란스의과대학으로 승격된다. 그리고 1957년 5월, 이 두 대학교는 연세대학교로 병합하게 된다. 이러한 역사를 지닌 연세대학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성경말씀(요한복음8:31~32)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체득한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건학이념을 사명으로 받들고 있다.

## 한국 경제 발전의 산실, 상경교육

연세의 상경교육은 언더우드(H. G. Underwood)가 1915년 연희전문학교를 창설하면서 개설한 상과에서 출발하였다. 연세는 한국 최초의 상경교육 기관으로서 1917년에 첫 입학생을 모집하여 1919년에 10명의 1회 졸업생을 배출하게 된다. 연희전문학교의 상과는 해방 직후 1946년 경제학과가 신설되고 연희대학교 상학부로 승격되면서 상학과와 경제학과의 두 학과를 갖게 되었으며 다시 연세대학교의 상경대학으로 확대 계승되게 되었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치르는 십년간의 격동기를 지나 1957년에는 연세대학교가 한국에서 제일 먼저 미국의 경영교육을 받아들여 1958년 3월 연세대학교에 경영학과가 신설되고, 1967년에는 상학과와 경영학과의 정원 각 10명씩을 떼어 내어 20명의 인원으로 한국 최초의 응용통계학과가 탄생하게 되었다.



상과졸업반의인자연습의광경  
1919앨범



상과경영연구회회원일동  
1928앨범



백남운교수 - 상품학강의장면  
1929앨범



상과연구실  
1933앨범

## 연세의료원, 한국 근대 의학의 역사



왕림병원광혜원전경  
1885~1887



병리조직학실습광경  
1915

조선 후기 이후 서양의학 지식이 중국과 일본 등을 통해 한국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치료를 목적으로 서양의학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알레에 의해 1885년 4월 10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광혜원)이 설립되면서 부터이다. 조선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던 제중원에서는 1886년부터 의학생을 뽑아 의학교육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서양의학교육이다. 1894년 9월 한국 정부로부터 제중원의 운영권을 이관 받은 에비슨은 의학교육을 지속하였고 세브란스로부터 기증받은 돈으로 1904년 9월 한국최초의 현대식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이 완공되게 되고 1908년 6월에는 제 1회 졸업생 7명을 배출하게 된다.

## 현대 한국의 정치 발전과 연세



신축광복관  
1954 앨범



연화관 사진  
1957 앨범

1945년 해방은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역사적 과업을 부여하였고 연세교육은 해방 이후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공적 영역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를 길러내기 위한 목표를 갖게 된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조국의 광복과 함께 1945년 10월 6일 연희전문학교 내에 한국 최초로 정치학과와 외교학과가 만들어지면서 시작하게 되어 그 이듬해인 1946년 8월 연희대학교의 승격과 함께 4년 과정의 정치외교학과가 만들어진다. 이후 1954년 법학과가 설치되었고 그해 정치외교학과와 법학과로 구성된 정법대학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1958년에는 정법대학에 행정학과가 설치되게 된다. 이후 1981년 3월에 정법대학에서 법학과가 법과대학으로 분리되고 정법대학은 사회과학대학으로 재개편하게 되었다. 연세는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면서 한국 정부의 행정적 체계화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 한국의 과학 기술 발전에 기여, 이과교육과 공학교육



광물학실험실



화학실험실

연세의 이과 교육은 1915년 4월 연희 전문학교에 국내 최초로 수물과와 응용화학과를 개설하여 근대과학을 국내에 도입한 이래, 현대 자연과학 연구 및 교육의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우리나라 자연과학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해방 후, 1946년 8월에는 연희대학교 이학원으로 인가되어 수학과, 물리기상학과, 화학과가 설립되었다. 1950년에는 이공대학으로 승격되었으며 연세 공학은 공업화학과와 전기공학과를 신설하면서 시작되었다. 1961년에는 그 규모가 확장되어 이학부와 공학부로 분리되었고 1976년에는 이과대학과 공과대학으로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리더를 키우는 연세대학교 세상을 이끄는 연세인



조선 개화와 현대의학, 국학발전의 요람이었던 창립부터 광복까지 60년, 그리고 조국 근대화와 민주화의 중심역할을 해온 광복 후 63년, 123년 동안 연세대학교는 한국 최초의 대학으로서 항상 변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대학이었다.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연세대학교는 인재의 요람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연세인들은 각 분야에서 눈부신 업적들을 만들어 가며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되고 있다.

연세대학교의 교육과 지원을 통해 해마다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국가고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2007년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공인회계사 시험, 변리사 시험 등 각 부문의 국가고시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연세인들의 활약상을 살펴보자.

	전국 사립대학교 합격자 규모순위	합격자 수
공인회계사 시험	1위	132명
외무고시	1위	11명
행정고시	1위	52명
변리사 시험	1위	39명
사법시험	2위	114명

2007 공인회계사 시험  
국내 최다  
132명 합격

### 16년간 공인회계사 1,756명, 압도적 전국 1위

2007년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예외는 없었다. 연세대학교가 제 42회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13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번 성과는 전체 선발인원 830명 중 15.9%로, 전국 대학에서 단연 1위이다. 이로써 연세대학교는 1992년도 이래 지금까지 1,745명의 공인 회계사를 배출하며 타 대학들과의 격차를 더욱 벌이게 되었다. 이번시험에서 최연소와 최고령 합격자 모두 연세대학교 출신이라는 점도 눈길을 모으고 있다. 최연소 합격자는 윤보령 학생(신학 05학번, 21세)이고, 최고령 합격자는 이종우 동문(경영 75학번, 51세)이다.

### 공인회계사 시험 주요대학 합격자 현황

(단위 : 명%)

대학	2004(39회)	2005(40회)	2006(41회)	2007(42회)
선발인원	1,001	1,004	1,007	830
연세대	159(15.9)	175(17.4)	156(15.5)	132(15.9)
서울대	154(15.4)	137(13.6)	93(9.2)	63(7.6)
고려대	146(14.6)	155(15.4)	155(15.4)	120(14.5)

## 의사 국가고시, 전체 수석의 영광을 누리다

2008년 1월 8일 발표된 2008년 제72회 의사국가시험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혜원 학생이 전체 수석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김혜원 학생은 1월 9일과 10일 양일간 4,028명의 수험생이 응시한 가운데 시행된 제72회 의사국가고시에서 538점 만점에 496.5점을 획득했다.

1월 18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08년 의대 사은의 밤'에서 수석 합격의 소식을 전해들은 김혜원 학생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자기 분량에 맞춰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고 어려운 부분은 같이 풀어가며 공부한 것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혜원 학생은 2월 졸업 후, 세브란스병원에서 본격적인 의사로서의 첫 출발을 위한 인턴 수련을 받고 있다.

우리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은 총 127명이 지원하고 126명이 합격하여 99.2%의 합격률을 기록하며 국내 최고의 의료 교육 기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 연세, 국가고시 최다합격으로 위상을 높이다

연세대학교는 2007년에도 각종 국가고시에서 전국 사립대 중 최대 합격자를 배출하며 고급 공무원의 요람으로 입지를 굳혔다.

### 행정고시, 전국 사립대학 중 1위

행정고시에 합격해 2007년 제 52기 중앙연수원 연수생으로 입소한 연세인이 52명으로 집계되었다. 행정/공안 직렬 43명과 기술 직렬 9명으로 전체 선발 인원의 17.5%를 차지하며 전국 사립대학 중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 무궁한 가능성을 보여준 사법고시

사법고시에서는 2006년 122명, 2007년 114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연세대학교는 입학정원의 규모가 타 대학에 비해 크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정원대비 합격률이 높아 대약진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가능성과 실력을 반증하듯 연세대학교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의 정원에 있어서도 전국 사립대학 공동 1위인 120명을 인가받았다.

### 외무고시, 놀라운 합격률 35.5%

외무고시 선발인원 31명 중 35.5%라는 합격률을 기록하여 연세대의 저력을 보여주었으며, 이 중 영어능통자 부분은 모두 연세대학교 출신으로 나타나 연세인의 뛰어난 기량을 증명하였다. 또한, 2007년 외무고등고시 합격자 중 6명이 화백실 발전을 위해 300만원을 기부하며 고시 합격의 기쁨을 모교에 다니는 후배들과 함께 하여 더 의미있다 하겠다.

### 이공계의 저력을 보여준 변리사 시험

대표적인 이공계 자격 시험인 변리사 시험에서도 연세대학교가 전국 사립대학 중 제일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 특허청 실무수습을 받은 연세인은 2006년 35명, 2007년 39명으로 전국 사립대학 중 1위를 고수하고 있다.

# 연세대의 Global Program

## ● 교환학생 제도

교환학생은 학생교환 협정이 체결된 외국대학 (2007년 9월 현재, 59개국 572개 기관)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학점 취득을 목적으로 파견되어 학업을 계속하면서, 상대국의 언어, 문화 등을 배우고 돌아와 본교에서 학점인정을 받고 졸업하는 제도이다. 파견 기간 동안 파견대학의 등록금이 아니라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환학생은 학생 교환협정이 체결된 상대 교환대학과의 학생교환수가 균형 (Balance)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지난 1년간 약 600명의 재학생이 해외대학으로 파견되었다. 파견대학 및 경험보고서는 다음의 사이트 (<http://www.yonsei.ac.kr/contents/sinchon/report.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SAP(Study Abroad Program)

해외대학 교환학생제도 외에 국제교육교류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정규 수업과 학점을 일정 범위 내에서 연세대학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파견대학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해서 비용 부담이 크지만 인원 제한 없이 파견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 방문학생제도(Visiting Student Program)

해외 우수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일정 기간 동안 파견되어 해당 학교에서 전공 공부를 하게 된다. 본교와 파견대학 두 곳에 모두 수업을 납부하고 등록해야 하지만, 본교 등록금의 일부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파견대학에 저렴한 수업료 납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파견 기간 동안 재학생 자격이 유지되고, 파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대학의 독특한 환경 속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강의를 듣고 교류함으로써 사고의 폭과 인적교류를 넓힐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

## ●●●● Global Internship Program

Global Internship Program은 국제 비즈니스 실무 경험, 어학능력 향상 및 외국 문화 체험을 통한 취업 경쟁력 강화와 연세대학교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Global Internship Program은 보편화된 어학연수와는 달리 국제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각광 받고 있으며, 실제 급변하는 기업 환경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앞으로의 학업 계획과 졸업 이후의 경력 설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 학기 동안의 인턴십을 수료한 후 본교에서 학기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Global Internship Program의 효과

- 실무 중심의 학습
-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
- 국제 경쟁력 제고
- 외국어 능력 향상과 문화 습득의 기회
- 향후 경력 개발

※ 자세한 내용은 연세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오.  
([www.yonsei.ac.kr](http://www.yonsei.ac.kr))

# Global Program

| 내블로그 | 이웃블로그 | 모두의 블로그 | 바로가기 |

전체 목록

목록 열기 ▾ Prologue | 블로그 N

## 도전하고 부딪치고, 마음껏 누려라!!

교환학생 체험기 2007년 1월 ~ 2007년 12월  
프랑스 Bordeaux Business School

글 김민영 경영학과 05학번

● **고등학교 시절 연세대 홈페이지에서 교환학생 체험수기를 읽고 또 읽으며 교환학생의 꿈을 키웠습니다. 1학년을 마치자마자 본격적으로 연세대와 협정이 맺어진 학교들을 조사해 보고 수학하고 싶은 학교의 리스트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후 저는 교환학생 선발 전형에 거쳐 3학년을 프랑스의 Bordeaux Business School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 ●● 새로운 세상으로 출발!

제가 다녀온 Bordeaux Business School(이하 BBS)은 프랑스 남서부에 위치한 Bordeaux라는 도시에 있는 경영전문대학으로 프랑스 내 상위레벨의 대학입니다. 프랑스의 고등 교육기관은 일반 대학인 Université와 엘리트 육성기관인 Grand école(그랑제콜: 전문대학원)로 나뉘는데, 연세대와 협정이 맺어진 프랑스 내 대학들은 모두 이 그랑제콜입니다. 연세대학교는 특히 경영분야의 우수 그랑제콜들(HEC, ESSEC 등)과 협정이 맺어져 있으므로 유럽, 특히 프랑스의 인재들과 함께 경영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에 좋습니다. 수업은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영어실력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되었고, 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팀워크를 하며 많은 자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는 타 분야 서적보다 경영관련 서적들이 방대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놀랐던 부분은 학교의 높은 국제화 정도와 탄탄한 산학 연계, 학교의 학생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점이었습니다. 전교생이 교환학생으로 파견될 수 있을 만큼 학교가 전 세계의 경영대학들과 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고, 학생들은 동아리나 수업 내의 프로젝트를 항상 기업 스폰서를 받아 진행하는 등 학교-학생-기업-정부 간의 연계가 아주 탄탄했습니다. 커리어센터에서 매주 유럽/미주/아시아의 인턴십 정보가 업데이트되므로 교환학생으로 파견되는 분은 이 커리어센터를 이용해 일찍부터 준비하여 방학동안 인턴십을 하고 돌아온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 ●● 함께 어울리고, 스스로 돌아보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파티와 동아리활동, 스포츠 등에도 적극적인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학교에는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는데, 기업과 정부, 학교의 스폰서를 받아 운영되므로 스케일이 큰 행사들을 많이 엽니다. 저는 보르도가 와인 산지로 유명한 만큼 와인을 배우고 싶어서 와인동아리에서 1년간 활동했습니다. 프랑스 친구들과 5인 1조로 팀을 짜 1박2일에 걸쳐 보르도 일대의 샤토들을 자동차로 탐방하며 미션을 푸는 경주에 참가했을 때, 우리 팀이 32위로 도착해 와인 30병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라 학기 중간 중간에 부활절 등 종교 관련 방학이 많아 짬짬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기 중의 방학들과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이베리아 반도부터 남유럽, 중유럽,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터키 등 유럽의 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여행의 과정에서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유럽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지식들을 강화할 수 있었고, 부분적인 지식들을 연결하여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이 항상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학기 때에는 독일인 룸메이트와 문화차이와 성격차이로 하기도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기도 했고, 집에 도둑이 들어 경찰서와 보험사를 오가며 애타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인이 없는 낯선 곳에서 1년간 크고 작은 일들을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 한층 강해지고 성숙해진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 나를 키워준 시간들

이렇게 BBS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을 통해 저는 경영학 전공 지식 이외에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글로벌한 세계, 그리고 그 안의 나의 위치와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나름의 답을 얻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한국이라는 울타리 안에 국한되었던 제 시야가 어느덧 전 세계로 넓어졌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학교에 파견되느냐에 따라, 어떤 친구들을 사귀느냐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노력과 추구하는 지향점에 따라 교환학생들이 하게 될 경험은 각양각색으로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양한 배움 속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자 대학 시절의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 논술로 잡은 합격의 꿈

●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은 ‘이 고생이 언제쯤 끝날까’, ‘내가 과연 원하던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에 고민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스스로가 공부의 목적과 목표를 세워야 합격의 기쁨을 맛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고등학교시절 연세대와의 인연을 계기로 연세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정했고, 논술을 공략하여 수시로 합격하겠다고 전략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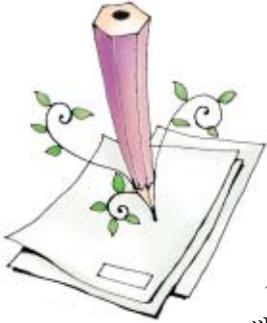
글 조민교 경제학부, 08학번

## 바라고 원하던 연세대 학생이 되다

● 그토록 바라던 연세대학교 학생이 되어서, 연세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된 내 자신이 정말 자랑스럽다.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연세대학교 점퍼를 입은 형들이 너무 부러웠는데 이제는 내가 그 일원이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낀다. 고등학생 때는 대학생이 되기만 하면 자유롭게 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대학생이 되니 오히려 고등학교 때보다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았다.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과 부모님이 만들어준 틀 안에서 주어진 것에만 집중해서 하면 많은 것이 해결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학생은 사소한 일 하나 하나도 자기가 직접 찾으며 챙겨야 한다. 공부도 마찬가지이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모르는 게 무엇인지 일일이 찾아서 가르쳐주는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대학생은 스스로 질문하고 수업준비도 미리미리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립심도 생기고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 방향하던 내게 목표를 심어준 연세대

● 몇 년 전, 공부보다 노는 것에 열중하던 때가 있었다. 중학교 3학년 중반까지 외고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했으나, 정부의 대입 정책에 의해 많이 혼란스러웠다. 결국, 일반고로 진로를 바꾸게 되었고, 그 동안의 목표가 사라졌다는 상실감 때문에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 그 시절 나는, 공부는 제쳐두고 많은 시간을 방황하면서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연세대학교 캠퍼스에 와서 동문 선배들을 만나고, 학교로 초빙된 여러 연사들의 강연을 듣게 되면서 나도 내 목표를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경제학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정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의 하나로 연세대학교에 수시로 입학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처음부터 정시보다는 수시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내신을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 평소부터 내신에 많은 신경을 썼다. 수행평가는 사소한 것이라도 완벽하게 하기 위해 준비했고 실기시험도 꾸준한 연습을 하여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4주전부터 공부할 정도로 내신에 신경을 썼다.



### 합격의 히든카드, 논술 공략법

• 고2 여름방학 때부터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논술준비를 했다. 학원에서 첨삭지도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되었지만 논술문제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글을 작성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논술은 같은 문제라도 끊임 없이 반복해서 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귀찮더라도 한 문제당 3번 이상 써보면 문제와 내용이 처음과 달리 많이 향상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논술공부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책을 읽는 것이다. 모두들 논술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책읽기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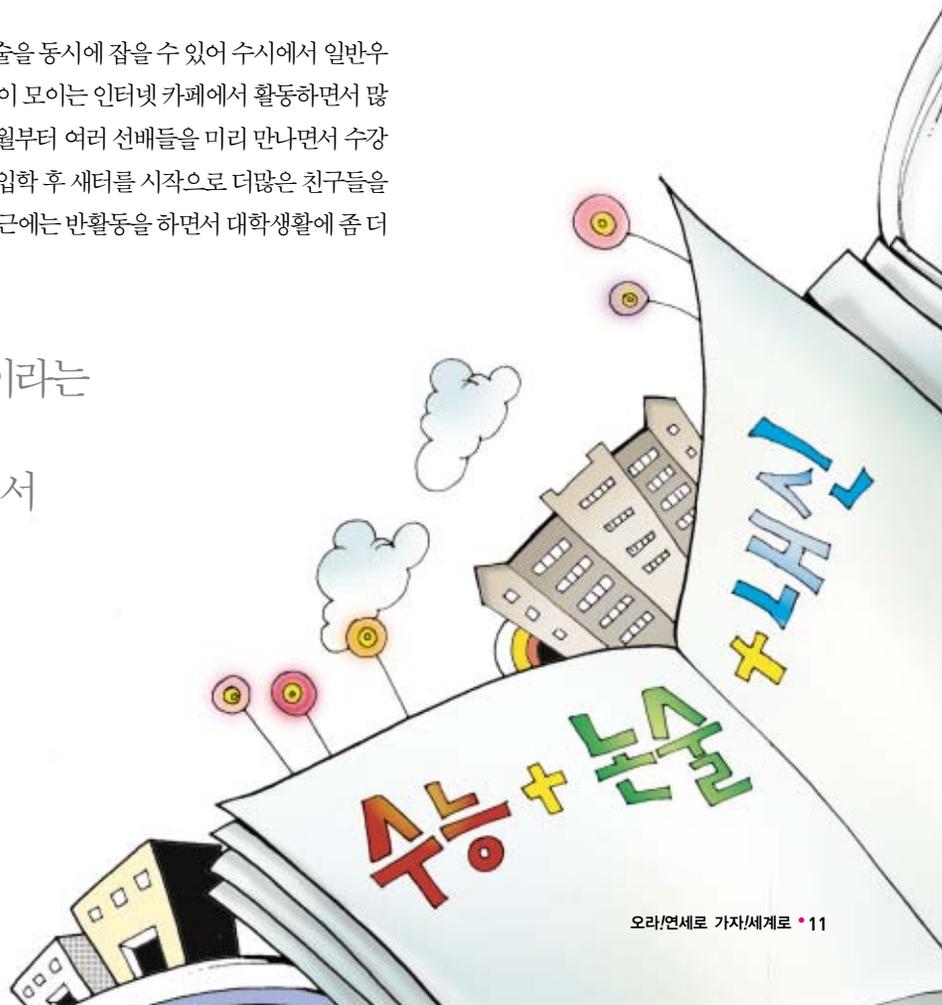
랜 기간 동안 책임기를 통해 사고력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고전소설, 에세이 등을 읽다보면 읽을 때에는 다 논술에 인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논술을 써보면 생각도 잘 나지 않고 오히려 논술내용과 맞지 않아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책도 막연하게 읽기보다는 논리적 사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들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철학, 사회과학, 인문사회 등의 책들을 통해 사고력 훈련과 하나의 시안을 여러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다. 논술에는 배경지식도 중요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자기 생각을 얼마나 논리정연하고 깔끔하게 쓸 수 있는가이다. 배경지식은 책으로 얻을 수 있지만 글을 논리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이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무턱대고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논술문제와 예시 답안을 최대한 참고해서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논술문제와 그에 관한 해설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또한 신문 사설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글을 어떤 식으로 썼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논술을 논리적으로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확고한 목표가 합격의 영광으로

• 결국 나는 내신과 논술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 수시에서 일반우수자 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다. 합격 후, 경제학과 수시합격생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미리 사귀게 되었다. 대학에 입학하기도 전인 12월부터 여러 선배들을 미리 만나면서 수강신청, 학사 제도, 학교 시설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었다. 대학 입학 후 새터를 시작으로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 고등학교 때와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반활동을 하면서 대학생활에 좀 더 적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연세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 앞으로 많은 후배들을 연세대학교에서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다.



김성탄 경영학과, 02학번

박정범 연세대학원 정치학과, 06학번

권용태 사회학과, 02학번



● ‘대학에 입학하면 머리 염색을 해봐야지, 미팅을 많이 해봐야지, MT 가서 밤새 신나게 놀아봐야지.’ 라며 잔뜩 희망에 부풀 수험생에게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대학에서의 자유는 놀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입학한 후에도 여전히 경쟁은 있고, 자신을 위한 투자도 계속된다. ‘나를 위해, 그리고 타인을 위해 나는 어떤 일을 하며 생활을 할 것인가’, ‘좀 더 성숙한 대학생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연세대학원 정치학과 박정범 학생과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김성탄, 사회학과 권용태 학생 세 사람이 세계의 대학을 돌아보는 계획을 세운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들의 남다른 여행길을 함께 따라가 보기로 하자.

### ○○○ What I Want...

박정범 학생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목표보다는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사람’,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 이 되고 싶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 세계를 좀 더 알고 싶었고, 그래서 더 넓은 세상으로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세계일주가 로망이었다던 김성탄 학생, 한국에만 국한되어있던 시야를 세계로 넓혀보고 싶다는 권용태 학생과 뜻을 모아 장장 6개월의 일정에 달하는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었다. 이미 무작정 떠나기에는 나이도 상황도 적절하지 않았고, 긴 여행에 필요한 비용도 턱없이 부족했다. 군대를 다녀와 복학하고, 공부하고, 취업하고... 그것이 그들을 기다리던 현실이었다. 하지만 그런 것에 고민하고, 주저하였다면 할 아버지가 된다 해도 출발하지 못할 터였다.

### ○○○ 그냥 떠나긴 싫었다

남들처럼 그저 배낭매고 다니며 관광을 하고 싶진 않았던 세 사람은 떠나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루트를 짜고 정보를 수집했다. 그들은 예쁘고 화려한 관광지 보다는 그 나라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우리 또래의 젊은이들과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세계의 대학’ 을 가 보기로 했다. 그리고 선진국인 미국, 영국 같은 나라가 아닌, 우리와 직접적인 교류가 적은 제3세계의 나라들을 돌아보며 대안 여행, 대안 유학에 대한 정보를 모아 한국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가능성과 루트를 열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세 사람은 프로젝트의 뜻을 같이하는 후원자가 필요했다. 박정범 학생은 “대기업 부장을 무턱대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수십 장의

“

작년 3월 9일 우리는 정든 한국과 잠시 ‘굿바이’ 를 했어요. 이 날을 위해 준비했던 8개월의 노력들이 기억을 스쳐갔고, 한편으론 여행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나라의 대학들과 얼굴 모르는 친구들 생각에 셀렘과 기대로 가득찼죠

”



제안서가 버려졌고, 냉소적인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생전 해보지 않았던 일인 데다가 계속되는 퇴짜에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지만, 그때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뜻을 함께하는 동료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라며 그 동안의 고생을 회상했다.

다시 일어난 세 사람은 스폰서가 없어도 출발할 수 있도록 경비를 최소화시켜 다시 계획을 세웠다. 그러자 기업에 프로젝트를 제안할때 더 당당할 수 있었고, 일도 잘 풀려갔다. 그들은 “우리 프로젝트를 더 잘 알리기 위한 팸플릿을 직접 제작한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말했다.

결국, K2에서 여행 장비 지원을 받았고, 개인스폰서로 많은 분들이 조금씩 도와주셨고, 출판사에 여행기를 출판한다는 구실로 700여만 원의 인세를 당겨 받았다. 그렇게 술한 고생 끝에 여행이 시작되었다.

◎◎◎ 발자취를 남기다

세 사람은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을 시작으로 세계의 19개 대학을 돌아보고,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돌아왔다. 국정홍보처에서 지원해준 한국에 대한 책을 각 대학마다 17권씩 기증하였으며, 영어가 통하는 나라에서는 영어로, 아니면 마음으로 그 곳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한국의 존재를 알려갔다. 김성탄 학생은 “한국과 교류가 적은 제3

세계의 대학들을 찾아다녔던 터라 한국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는 미리 정

했던 대학에 가서 좌판을 펼

쳤고, 한국을 알리는 행사

를 열었습니다. 한국을 알

리는 팸플릿, DVD 등을 나눠

주고, 대학생들의 한글이름을

붓글씨로 써주었죠. 한국에 관

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들었

고, 그 계기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행사를 마친 후에는 그 학교의 입학처에 들려 각종 입학정보, 유학 자료들을 모아 오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 하곤 했죠.” 라고 말했다. 그리고 권용태 학생은 여행 중 에피소드에 대해 “한국에 대해서 좀 알려진 동남아시아 쪽은 한국 학생임을 알아보고 행사를 열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핀란드에서는 우리를 초대해 김밥과 김치를 대접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워낙 낯선 곳이다 보니 한국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터키에서는 학장님을 만나 뵈 수 있는 기회를 얻어, 행사를 지원받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죠.”라고 말했다. 그들은 단순히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해외 대학의 정보 수집과 한국을 알린다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프로젝트 수행 중이었기에 유명한 관광지엔 한눈을 팔 수도 없었고, 미리 계획해둔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느라 긴장을 늦출 수도 없었다. 여행 내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따라다녔다고 한다. 박정범 학생은 “6개월 동안 우리는 어느 곳을 가나 이방인이었지만, 생김새가

달랐던 우리를 이방인처럼 대하지 않았던 따듯했던 곳들이 특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한국에 와서도 어쩌면 소외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반겨야겠다는 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어요.”라고 말했다.



◎◎◎ 지금 우리는...

박정범 학생은 연세대학원 정치학과 학생으로 돌아와 졸업논문을 준비하고 있고, 김성탄 학생은 졸업반인 4학년이기에 취업준비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권용태 학생은 여행을 다녀온 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기자’가 되겠다는 목표가 생겼다고 한다. 그는 또 다른 공부를 위해 일본 교환학생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여행이 시작되기 전부터 약속했던 그들의 여행기 출판을 앞두고 있다. 책을 통해 그들이 다녔던 많은 나라의 대학들과 사람들, 그곳의 정치, 문화 그리고 유학 등에 대한 정보를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여행은 끝났지만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다.

# 점음의 에너지를 발산하라

# Head

신현석 (정치외교학과 05학번)

## ◎ Head : 정연회 (정치연구학회)

정치라고 하면 딱딱하고 머리 아픈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외교학이 전공인 만큼 보다 폭넓은 공부를 위해 가입했어요. 우리 정연회는 중간에 신입생이 없어 문을 닫았던 아픔을 딛고 작년엔 다시 모이게 되었기에, 애착도 남다릅니다. 현대정치 뿐 아니라 고대 서양 정치학자에 대한 지식도 쌓고 토론도 하고 있어요. 국내의 정치흐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새는 글로벌시대라 국제 정치의 분위기를 읽는 것에 대한 토론도 많이 하고 있어요. 분기마다 세미나를 개최하여 타 대학의 학생들과의 교류도 가지고, 일방적인 공부보다 다른 사람과의 토론을 통해 얻는 것이 생각보다 많아요. 비슷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된다는 것도 큰 장점이지요.

## ◎ Heart : Glee Club (남성합창단)

연세 Glee Club는 개교 백주년이 되는 해에 창단된 남성합창단입니다. 남학생들만 잔뜩 모여 있는 칙칙한 동아리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슴으로 노래를 느끼며, 멋진 화음을 만들어내는 부드러운 남자들의 동아리예요. 그리고 실력과 미모를 겸비한 음대생이 반주를 맡아주고 있고, 이화여대 합창단과 혼성합창 공연 연습도 거의 매주하고 있답니다. 남자들만 있는 칙칙한 동아리 아닌 거 맞죠? 매년 11월에 정기 공연도 하고, 5월의 대동제에서도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을 만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노래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래 실력은 자꾸 연습하고 공연하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경우가 많으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고, 그리고 주로 찬송가를 많이 부르긴 하지만 종교적 내용보다는 노래의 화음을 맞추는 데 집중하며 노래 하고 있고 가곡이나 동요, 응원곡 등의 재미있는 노래도 많이 부르니까 즐기면서 활동할 수 있었어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아름다운 화음이 되어서 울려 퍼지는 그 감동과 환희는 저에게 놓칠 수 없는 카타르시스로 다가와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도전해볼 만한 동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가수 Sweet Sorrow도 우리 합창단 출신들이죠.(지랑)

● '나'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 내안의 내가 너무도 많다는 노랫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숙맥일 것이라는 편견, 잘 노는 사람은 생각이 없을 것이라는 착각은 이제 버리는 게 좋겠다.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공부에도 취미에도 열심이니까.

이수민 (생물학과 07학번)

🌀 **Heart** : Jazz Feel (재즈댄스 동아리)

그저 춤 잘 추는 사람들을 보면 막연하게 '멋지다'라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다 재즈필에 가 입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많이 어설퍼던 모습들이 연습을 통해서 많이 향상되고 있어 뿌듯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재즈댄스가 뭐냐고 물으면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재즈댄스는 모던재즈, 아프로재즈, 코믹재즈 등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모던재즈는 클래식 발레의 경향이 강한 재즈 스타일이고, 아프로재즈는 흑인댄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재즈스타일, 코믹재즈는 코믹한 뮤지컬 탭댄스를 도입한 재즈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종류가 많은 줄 모르셨죠? 그래서 지루할 틈이 없답니다.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다보면 제안에 이런 끼가 있었나 싶을 때가 있어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만 생각하다보니, 과감한 동작도 쑥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오죠. 땀 흘려 공연할 때는 노력한 만큼 관객의 호응도 좋으니 보람도 있어요. 무대 위의 우리 팀이 대단한 스타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웃음)

🌀 **Head** : 이과대학(생명시스템대학)의 신화학술부

이과대학 2반의 학술부는 82년 화학과 선배들을 중심으로 '과학도들도 사회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뱃거리'나 이주노동자영화제 참여 등 우리 사회를 한 번 더 돌아보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뱃거리'란, 대립되는 것을 민중적인 원칙, 민중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로 통일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평소에 자신이 관심 갖는 사회적 이슈를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면 그 중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를 선택하여 '뱃거리'를 엮습니다. 07년도에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필요한가', '달레반 피랍사건' 등 많은 주제에 관한 뱃거리가 있었습니다. 종종 찬반의견이 팽팽한 주제일 때는 서로 열변을 토하기도 하지만 뱃거리가 끝난 다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화목한 분위기로 돌아가니 뒤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웃음) 또한 1년 동안의 뱃거리 자료를 모아 '신화지'라는 이름의 학회지를 내서 기록으로 남겨두는데, 나중에 자신이 그때 그 주제를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되짚어 볼 수도 있어 좋아요.

**여러분도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싶으시다면 도전하세요!!**





# AKARAK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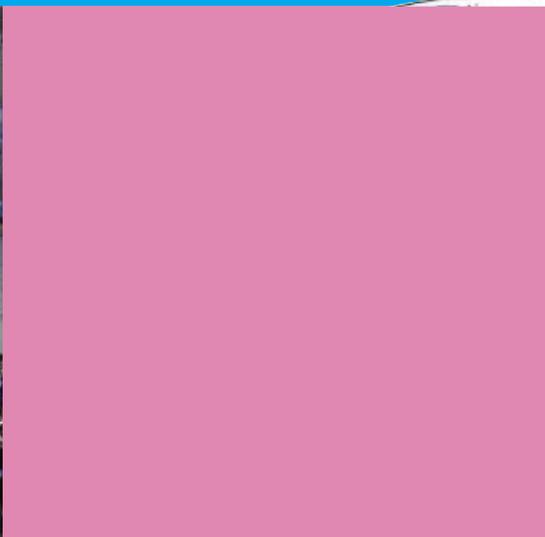


젊음을 외로하다

# 아카라카

마음까지 푸르른 오월, 연세대학교에는 학생들의 뜨거운 합성이 가득합니다. 승리를 기원하는 응원 열기와 다양한 공연으로 즐거움이 가득한 연세대학교는 젊음을 뽐어낼 수 있는 열정 가득한 푸름입니다.

사진제공 : 연세대학교 사진동아리 (연영회)





5. 광복관

●●●●● 광복관 전공수업을 듣기 위해 광복관에 왔어요. 광복관은 주차장부터 첨단 강의실, 모의법정, 고시반 열람실, 법학 연구소, 국제회의실 등 주로 연구와 학술활동에 필요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저도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4. 중앙도서관

●●●● 중앙도서관 다음 수업을 위해 미리 책을 읽어 두려고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현재 중앙도서관 뒤에 제2중앙도서관이 2008년 5월에 완공될 예정이어서 공부하는 환경도 더 좋아질거예요. 중앙도서관과 제2중앙도서관이 연결되면 국내에서 가장 큰 중앙도서관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공부할 맛 나겠조?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상큼한 연세대학교 캠퍼스로 안내할 법학과 07학번 김영준입니다. 오늘 하루 저의 일과를 함께 해봐요!

# 파★파 라 치 캠퍼스 라이프

봄★냄새 가득한 캠퍼스에, 새내기들의 상큼함이 더해진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를 함께 둘러볼 시간입니다.





## 2. 백주년기념관

백주년기념관은 연세대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몸소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 존재라고나 할까요.

## 3. 본관

● ● ● **본관** 연희관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연희관에 가기 전에 언더우드 동상이 먼저 반겨주네요. 정원에 있는 설립자 언더우드의 동상은 "진리를 원하는 자 나에게로 오라" 라고 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연희관과 함께 본관 건물은 연세대의 원조라고 할 만큼 오래된 역사의 산 증인인데 여름이 되면 연꽃빛 담쟁이덩굴이 건물을 감싸고 있어 너무 예뻐요.

● ● ● **백주년기념관**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에 백주년 기념관이 있어요. 왼쪽엔 공대 건물들이 살짝 보이네요. 백주년기념관은 연세대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몸소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 존재라고나 할까요.^^ 내부에는 콘서트홀과 연세대학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 ● ● **연희관** 연희관은 1957년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통합하면서, '연희' 라는 이름을 남기기 위해 이름 지은 건물이에요. 현재 제 친구가 있는 사회과학대학 건물, 행정대학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엽기적인 그녀, 클래식 등의 영화촬영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앗! 친구의 수업이 끝났나 봐요. 전 잠깐 점심 먹고 올게요! 이따 도서관에서 봐요~



## 1. 정문



# 몽골에 심은 연세정신

● 작은 계기가 몇 년 후,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전기전자공학과 김재석 교수가 처음 몽골에 가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시작이었다. 연세대학교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로 우수교원 상을 수상했던 그는 학교 안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섬김의 리더십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 연구 성과로 인정받은 우수 교원

◎ 김재석 교수는 정통부가 지원하는 대학 ITRC 연구 센터 사업을 통해 연구 개발한 기술 중 2건을 2005년도에 5개 회사에 2억5천만 원의 기술료를 받고 기술 전수하는 등 산학협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우수 교원 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대학의 연구팀들이 산업체의 기술 발전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좋은 모델로 성장하고 싶다.” 는 소감을 밝혔다.

미국의 벨연구소(Bell Laboratories)에서 5년간 실무 경험을 쌓았던 김재석 교수는 다양한 실무 연구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다. 나아가 학교에서 하는 연구를 논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회로와 반도체 기술을 연구했다. 학생들도 실제 회사에서 활용되도록 개발하는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취업을 해서도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어 교육적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이었다.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에서는 기술 연구만을 잘 하도록 가르치지 않는다. 공학인도 창의력을 갖춰야 한다는 기치아래 창의력 강화 프로젝트를 3·4학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참여하는 학생들은 여러 명이 모여 산업체 펀드를 받아 팀별로 발표를 하며, 학점을 인정받고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나선 것이었다. 나누면 나눌수록 기쁨이 두 배가 되었다. 김재석 교수는 “지금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의 지역에도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으며, 많은 연세인들이 봉사의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학도들도 경영,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춰야 하기에 분야별 필수 과목을 선정하여 수강하게 하고 있다. 공학인 지도자가 되려면 마케팅, 심리, 사회, 문화적 지식들을 갖춰야한다는 생각에서다. 연세대 공학도들이 차별화 되는 것은 이런 남다른 교육 방침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

### **몽골과의 인연**

◎ 김재석 교수에게 몽골의 IT 교육을 지원하게 된 계기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는 “한국인이 선교의 목적으로 몽골에 세운 후례 정보통신 대학교의 총장으로부터 강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마침 안식년을 맞았기에, 한 학기 강의만 맡아 가르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보니 기초 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우리 대학에서는 2~3년에 한 번씩 컴퓨터를 교체하는데, 그 나라는 우리가 안 쓰는 모델이 최첨단 설비일 정도였죠.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김재석 교수는 그렇게 한번 다녀온 몽골에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교수들의 참여도 이끌어내기 위해 몽골에서 IT 세미나를 주최하는 등 물질·인적자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후례 정보통신 대학교의 교수로 길러내고자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연세대학원로의 유학을 지원하기도 했다. 연세대학원에서 유학하는 동안 연세정신을 배워 그것이 그들의 나라에서 씨앗을 심듯 전파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 **또 다른 시작**

◎ 김재석 교수는 한번 시작하고 나니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는 아직 발전이 부진한 다른 나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나선 것이었다. 나누면 나눌수록 기쁨이 두 배가 되었다. 김재석 교수는 “지금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의 지역에도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으며, 많은 연세인들이 봉사의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섬김의 리더십으로 연세정신을 심자**

◎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김재석 교수는 학창시절을 회상하며, “예전의 연세대는 정신은 제시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했던 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행동으로 옮기는 연세정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섬기는 리더로 키우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서로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재석 교수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그것이 벼슬이 아닌 아랫사람들을 보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며 사회를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섬기는 리더가 많아져야 사회가 정직해지고, 바르게 돌아갈 것이라며 연세정신이 많은 나라에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 든든한 연세대의 힘!!

실력을 키우고, 섬김의 리더로 만들어 가는 연세대학교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봅니다.

1

## 세심한 조력자가 되어주는 교육개발 지원센터

교육개발센터는 교수·학생의 연구와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질 높은 교육을 통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자 설립되었다. 교육개발지원센터에서는 튜터를 통해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독수리튜터링'은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튜터링 프로그램으로 연세대학교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며, 튜터 1인당 튜티 2~4명으로 구성되어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서 공부하는 Appointment Tutoring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밖에 같은 전공 소속 학생들끼리 팀을 이루어 진행하는 '학과 단위 튜터링', 외국인 및 재외국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및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1:1 '글로벌 튜터링', 새터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및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하나 튜터링', 튜터가 직접 제작한 튜터링 동영상 내용을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는 'TCC(Tutor Created Contents)튜터링' 등 다양한 튜터 프로그램이 있다. 한 학기 동안의 모든 과정을 완료한 튜터에게는 '자원봉사 인증서' 발급과 함께 '사회봉사 학점(1학점)'이 부여된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은 연세인의 덕목인 '섬김의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 될 것이다.

# 2

## 연세인이 리더입니다! 리더십센터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리더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설립된 연세대학교 리더십센터는 국내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으로 리더십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외부 인사를 초청하는 프로그램에는 국내외의 저명한 리더를 연사로 초빙하여 학생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리더십 특별강연'과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중견지도자를 초청하여 학생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리더십 워크숍'이 있다. 더불어 사회봉사 프로그램, 인턴십 프로그램, 리더십 캠프 등 경험을 통해 진정한 리더가 되는 자세를 배우는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연세대학교 리더십개발원은 동북아시아 학생들의 지적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연세리더십포럼-NEAN(Northeast Asian Network : 대학생 동북아네트워크)을 개최해 왔다. 이번 NEAN 2008포럼은 1월 29일에 '동북아시아의 대학생들이 가져야할 리더로서의 자세'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해가 거듭될수록 NEAN은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포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 3

## 공학 발전의 교두보가 되어준 공학교육인증 서비스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공학교육인증서비스(이하 ABEEK)란, 공학교육을 통해 공학실무를 담당할 준비가 된 학생을 보증해주는 것으로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공학교육 인증에 대한 정책, 절차, 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ABEEK인증 과정(track)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르며, 이 과정을 선택한 학생은 전공기반, 공학기본소양, 공학실무에 관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대학에서 인정하는 지정된 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인증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교수와 지속적인 상담을 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학습 성과인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update해 보관해야 하며, 수업개선을 위한 수업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관련 전공에는 화공생명공학, 전기전자공학, 건축공학, 토목·환경공학, 기계공학, 금속시스템공학, 컴퓨터과학 등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공 분야별(공학 프로그램 단위)로 인증하고 있으며, 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 능력 및 자질 배양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생은 취업 시 포트폴리오와 인증서를 통해 업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다.



# Yonsei News

## 16대 총장 김한중 교수 취임

2008년 2월 21일, 제16대 총장으로 선임된 김한중 교수(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의 취임식이 거행됐다. 김한중 신임 총장은 “통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품위 있는 개혁을 통해 앞으로 4년, 연세 역사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변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아 김한중 신임 총장이 제시한 비전은 ‘YONSEI, The First and The Best’이다. 이를 위해 김 신임 총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배려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본부와 평교수, 교수와 직원, 교직원과 학생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상호신뢰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여건이 취약한 학문 분야를 배려하고 필요한 부분을 확실히 지원하며, 여성, 장애우, 외국인 등 소수자를 아끼고 존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한, 김한중 신임 총장은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한 연세대학교의 이미지 제고, 동문들의 사회적 진출 지원 등에 대한 소신도 피력했다.

## 연세자원봉사단, 태안 유류피해 지역 봉사활동

‘연세와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연세인들이 검은 기름으로 얼룩진 태안을 찾았다. 연세자원봉사단(단장 박홍이)은 총학생회(회장 성치훈)와 함께 지난해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충남 태안군 소원면 구름포 해수욕장 등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지역에서 복구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재학생 및 교직원 700여 명이 참여해 이웃사랑과 환경보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12월 22일에는 신과대학 학생회 20여 명, 23일에는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100여 명, 27일과 28일에는 400여 명이 참여했으며, 1월 19일에는 공과대학 학생회 150여 명이 주축이 되어 봉사에 나섰다.

## UIC 학생, 미 대학 연수 프로그램서 두각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미국 대학 연수 프로그램에서 국내 대학생들 가운데 두각을 나타냈다.

미국 국무부 교육문화부와 주한 미국 대사관 주최로 열리는 프로그램인 ‘2008 Study of the U.S. Institute for Korean Undergraduates Student Leaders’에서 연세대학교 학생 3명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3명은 모두 언더우드국제대학(학장 모종린, 이하 UIC)에 재학 중인 2학년 이다섭 양, 신혜지 양, 전초은 양이다. 이는 UIC의 커리큘럼이 국내 대학 가운데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난해 미 대사관 후원 시카고 대학 연수 프로그램에서도 연세대학교 학생 5명이 선정되어 본교의 학생들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평가에 이어 15명으로 늘어난 올해에도 연세대학교는 최고의 성적을 올려 다시 한 번 연세대학교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 경력직 채용에서도 연세인 선호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이 바로 연세대학교 출신임을 재확인되었다. 채용정보업체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헤드헌팅업체 ‘HR파트너스’는 헤드헌터 115명을 대상으로 이직 시장에서 기업들이 선호하는 인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07년 10월 22일 밝혔다. 조사대상 헤드헌터의 56%가 이직 시장에서 선호 출신 대학(복수응답)으로 연세대학교를 선택했다. 응답자의 73%가 ‘특정 대학 졸업자를 선호한다’고 답한 가운데 연세대학교 졸업자가 56%로 가장 인기가 많았고, 서울대(52.4%), 고려대(41.7%), 해외대학(11.9%), KAIST(8.3%) 등이 뒤를 이었다.

## 연세 학부모 대학 첫 입학식 개최 최고 수준의 교양 교육, 자녀의 대학 생활 정보 제공

대외협력처(처장 김동훈)는 연세대학교가 가진 교육의 수월성을 바탕으로 학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와의 유대 강화를 위해 ‘연세 학부모대학’을 개설했다. 3월 11일 오전 10시 알렌관에서 첫 입학식이 열렸고, 학부모대학의 강의는 매월 둘째, 셋째, 넷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뤄진다. 강의는 건강,



16대 총장 김한중 교수 취임



연세자원봉사단, 태안 유류피해 지역 봉사활동

웰빙 등 실용적인 것에서부터 교육, 법률, 상담, 경제, 재테크 등 문화 강좌까지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다. 학부모대학 강사들은 전부 스타급들로 구성되어 있다. 윤희섭 전 교육부 장관, 송자 전 총장, 이성호 교육학과 교수, 김관동 성악과 교수, 김주환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등 연세대학교의 최고 강사 뿐만 아니라, 최인호 변호사 등 외부 강사들도 초빙된다.

■ **후천적 요인에 의한 유전자 발현 변이 규명 (Nature Genetics 등재)**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김영준 교수 연구팀이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 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자 발현 변이의 새로운 원인을 밝혀냈다. 김영준 교수팀의 이번 연구 결과는 유전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네이처 유전학 (Nature Genetics)' 지 온라인 판 1월 29일자에 게재됐다. 김영준 교수의 이번 연구는 후성 유전 인자가 환경 등의 영향에 의한 가역적 유전자 변이를 통하여 세포 간, 개체 간의 변이를 유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밝힌 데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유전적 변이'에 의해 유전자 발현 변이가 일어나는 경우에만 관심을 두고 있던 과학계에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이 연구를 사람으로 확대시켜 사람 간에 존재하는 후성 조절 인자의 유전학적인 차이와 유전자 발현의 변이에 대한 차후 협력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밝혔다.

■ **논문인용도 최상위 1% 선정-서활(徐 闊) 연세의대 교수**

(BK21 세포기반 나노이식재연구팀장) 의과대학 서활 교수(의학공학교실)의 연구논문 인용도가 최상위 1%에 들어 그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국내 과학자의 논문이 응용과학 분야가 아닌 기초학 분야에서 피인용지수가 최상위 1%에 랭크된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톰슨 사이언티픽(Thomson Scientific)사는 서활 교수가 지난 2002년도에 「Biomaterials」지에 발표한 'Characterization

of Porous Collagen/Hyaluronic Acid caffold Modified by 1-ethyl-3(3-dimethylaminopropyl) carbodiimide Cross-linking' 논문이 재료과학 분야에서 2007년 10월 현재까지 피인용 누적 지수 최상위 1%의 우수 연구논문으로 선정되었다고 통보했다. 이 논문은 손상 입은 인체 조직 재생을 위해 사용하는 성체줄기 세포 등을 인체에 적용할 때 나노(Nano) 분자를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재생 세포의 기능을 조기에 발휘할 수 있는 기전을 밝힌 연구로 향후 재생의학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 **제7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과학재단] - 손소영 교수 (공과대학 정보산업공학과)**

손소영 교수(정보산업공학과)가 김빛내리 서울대 교수, 정희선 국립과학사연구소 연구원과 함께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이 선정한 제7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을 수상하였다. 손 교수는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기술신용보증 평가 모형 개발'의 공로로 이번 상을 수상했다. '데이터 마이닝'은 많은 정보 가운데 유용한 부분을 골라 뽑아내는 기술로, 손 교수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첨단 분석 시스템을 개발했다. 'Technology Rating System(TRS)'로 명명된 이 기술은 정부기관에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제도에 활용됐다. 그 결과 중소기업이 융자 사고를 내는 빈도가 현저히 낮아져, TRS가 도입된 지 불과 2년 만에 900억 원 이상의 국가 예산 손실을 막는 데 공헌했다. 한국과학재단과 동아시아언스가 주관하는 이 상은 여성 과학기술자의 사기를 높이고 여성의 과학기술계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2001년 마련됐으며, 올해 시상식은 12월 7일 서울르네상스호텔에서 열렸다. 손 교수는 상금 1,000만원을 우리대학교 공과대학 장학금으로 기부키로 했다.



UIC 학생, 미 대학 연수 프로그램서 두각



연세 학부모 대학 첫 입학식 개최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김영준 교수



의과대학 서활 교수



손소영 교수 (공과대학 정보산업공학과)

## CONTENTS

전형일정	<u>27</u>
연세대학교 2009학년도 입학전형의 특징	<u>28</u>
연세대학교 2009학년도 입학전형 주요 사항	<u>28</u>
서울캠퍼스 입학전형 안내	<u>29</u>
원주캠퍼스 입학전형 안내	<u>36</u>
FAQ	<u>41</u>
연세대학교 논술시험 안내	<u>44</u>
연세대학교 장학제도 안내	<u>49</u>

# 전형일정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모집요강에서 다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 수시 1학기 모집

	일정	내용
7월	15일(화)~17일(목)	원서접수
	9일(토)	면접 대상자 발표
8월	14일(목)	면접구술시험
	20일(수)	합격자 발표
9월	1일(월)~2일(화)	합격자 등록

## >> 수시 2학기 모집

### 01. 수시 2-1차

	일정	내용
9월	8일(월)~12일(금)	원서접수
	13일(월)	면접 대상자 발표
10월	18일(토)	면접구술시험
	23일(목)	합격자 발표
11월	13일(목)	수능시험
	10일(수)	수능시험 성적 통지일
12월	14일(일)	조건부 합격자 최종 발표
	15일(월)~16일(화)	합격자 등록

### 02. 수시 2-2차

	일정	내용
9월	8일(월)~12일(금)	원서접수
	13일(목)	수능시험
11월	17일(월)	UIC 면접 대상자 발표
	22일(토)	논술시험
		UIC 면접구술시험
	10일(수)	수능시험 성적 통지일
12월	14일(일)	합격자 발표
	15일(월)~16일(화)	합격자 등록

## >> 정시모집

	일정	내용
12월	20일(토)~23일(화)	원서접수
	31일(수)	우선선발 합격자 발표
1월	3일(토)	논술시험
	24일(토)	합격자 발표
2월	2일(월)~4일(수)	합격자 등록

## 연세대학교 2009학년도 입학전형의 특징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제공 방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전체적인 전형의 틀은 2008년도와 일관성있게 유지함
- 다양한 전형요소(학생부, 논술, 면접, 수능) 중 한 가지 분야가 우수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전형유형을 다양화함
  - [학생부] 교과성적우수자 전형(수시 2-1차)
  - [수 능] 일반 전형의 우선선발(정시)
  - [면 접] 면접 전형(수시 2-1차)
  - [논 술] 논술 전형(수시 2-2차)

## 연세대학교 2009학년도 입학전형 주요 사항

1 모집 시기	<p>[수시 1학기] 언더우드국제대학 전형, 연세인재육성성프로그램 전형</p> <p>[수시 2학기] 2-1차 모집(학생부, 서류, 면접)과 2-2차 모집(학생부, 논술)으로 구분 ※ 2-1차, 2-2차 모집에 복수 지원 가능함</p> <p>[정 시] 일반전형, 특별전형</p>
2 전형 신설	<p>[연세인재육성성프로그램 전형]</p> <p>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선발하여 국제적 지도자로 육성하고자 연세우수학생육성성프로그램과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전형으로써 입학사정관을 평가에 활용함</p> <p>[연세한마음 전형] 원주캠퍼스에 연세한마음 전형을 신설함</p>
3 우선선발 방법 유지	<p>[수시 모집]</p> <p>서울캠퍼스 일반우수자 전형은 수능에서 최저학력기준과 계열별 기준을 만족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학생부(20%)와 논술(80%)로 우선 선발함</p> <p>[정시 모집] 모집인원의 50%를 수능성적만으로 우선 선발함</p>
4 정시모집 자연계 논술시험 폐지	<p>[서울캠퍼스]</p> <p>일반전형(자연계)과 특별전형에서 논술시험을 폐지하고 일반전형 인문사회계 지원자에게만 논술시험을 실시함</p> <p>[원주캠퍼스] 논술시험을 실시하지 않음</p>
5 사회공헌 및 통합을 고려한 전형에서 모집인원과 지원자격을 확대	<p>[연세한마음 전형]</p> <p>정원의 기회균형선발 전형으로 지원자격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서울캠퍼스에서 122명, 원주캠퍼스에서 30명 선발함</p> <p>[사회기여자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지원자격에 '다문화가정 자녀'를 추가함</p>
6 공인영어성적 응시기간 지정	<p>공인영어성적을 지원자격으로 제출해야하는 전형의 경우 공인영어시험 응시기간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p> <p>[수시 1학기 지원자] 2006. 7. 14 ~ 2008. 5. 18</p> <p>[수시 2학기 지원자] 2006. 9. 8 ~ 2008. 7. 12</p>

# 서울캠퍼스 입학전형 안내

전형관련 세부 사항과 정확한 내용은 모집요강에서 최종 확인하기 바랍니다.

## >> 전형별 모집인원

시기	전형	모집인원	비고
수시 1	언더우드국제대학 전형	70명	신설
	연세인재육성프로그램 전형	20명	
수시 2	2-1차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250명
		조기졸업자 전형	250명
		글로벌리더 전형	275명
		특기자 전형	150명
		음악대학 일반우수자 전형	17명
	2-2차	음악특기자 전형	2명
		체육특기자 전형	50명
		일반우수자 전형	966명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70명
		연세한마음 전형	122명
정시	언더우드국제대학 전형	25명	정원 외
	일반 전형	1,349명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139명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15명	
	전문계고교출신자 특별전형	52명	

●모집인원은 추후 변경가능하니 모집요강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 >> 수시 1학기 모집

### 01. 언더우드국제대학 전형

지원자격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2006년 4월 이후), 졸업예정자(3학년) 또는 검정고시합격자(2006년 4월 이후)로서 지정 기간 내에 응시한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할 수 있는 자		
모집인원	언더우드학부(인문사회) : 50명, 언더우드학부(공학) : 20명		
전형요소	서류	영어면접구술시험	
	60%	40%	
전형방법	1단계 : 서류평가로 영어면접구술시험 대상자 선발 2단계 : 서류평가와 영어면접구술시험으로 합격자 선발		
최저학력기준	없음		

●서류평가 : 교과성적, 학생부비교과영역, 추천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02. 연세인재육성프로그램 전형

지원자격	국내 일반계 고등학교 2009년 2월 졸업예정자		
모집인원	20명 이내		
전형요소	서류	심층면접구술시험	
	50%	50%	
전형방법	1단계 : 서류평가로 심층면접구술시험 대상자 선발 2단계 : 서류평가와 심층면접구술시험으로 합격자 선발 ※ 서류 및 면접 평가시 과락제를 적용하여 과락자는 불합격 처리함		
최저학력기준	없음		

●서류평가 : 교과성적, 학생부비교과영역, 추천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연세인재육성프로그램 전형은 입학생에게 지원 시 희망한 전공을 배정하고(의예, 치의예, 간호, 예체능계 제외) 연세우수학생육성프로그램 장학 혜택을 지원함

## >> 수시 2학기 모집 : 수시 2-1차

### 01.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지원자격	국내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2009년 2월 졸업예정자)		
모집인원	250명		
전형요소	학생부		
	교과	비교과	
	90%	10%	
전형방법	일괄합산 전형		
최저학력기준	[인 문 사 회]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2등급 이내 [자 연]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2개 이상 2등급 이내(단, 수리(가) 또는 과학탐구 포함) [의예/치의예]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1등급 이내		

### 02. 조기졸업자 전형

지원자격	국내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2009년 2월 졸업 예정자)으로 2학년 1학기까지 학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에 기재된 수학과 과학 교과의 이수단위 합계가 43단위 이상인 자		
모집인원	250명		
전형요소	교과	서류	심층면접구술시험
	30%	30%	40%
전형방법	1단계 : 교과와 서류평가로 심층면접구술시험 대상자 선발 2단계 : 교과, 서류평가 및 심층면접구술시험으로 합격자 선발		
최저학력기준	없음		

•서류평가 : 추천서, 자기소개서, 학생부비교과영역, 기타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03. 글로벌리더 전형

지원자격	국내(일반계)·국외 고등학교 2009년 2월 졸업 예정자 및 졸업 후 2년 이내인 졸업생으로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국내 정규 고등학교에서 외국어 및 외국어에 관한 교과 또는 국제전문교과를 58단위 이상 이수한 자 2. 지정기간 내에 응시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언어(한국어 제외)에 관한 공인성적을 제출할 수 있는 자 3. 2과목 이상의 AP STUDENT GRADE REPORT(College board 발행)와 지정기간 내에 응시한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할 수 있는 자		
모집인원	275명		
전형요소	교과	서류	심층면접구술시험
	30%	30%	40%
전형방법	1단계 : 교과와 서류평가로 심층면접구술시험 대상자 선발 2단계 : 교과, 서류평가 및 심층면접구술시험으로 합격자 선발		
최저학력기준	없음		

•서류평가 : 추천서, 자기소개서, 학생부비교과영역, 기타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예고사항 : 지원 자격 중 'AP 2과목과 공인영어성적 요건'은 2010학년도 전형부터 폐지

#### 04. 특기자 전형

지원자격	국내·외 고등학교 2009년 2월 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2년 이내인 졸업자 또는 국내 검정고시 합격자(2006년 4월 이후)로서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인문사회계] 가. 전국 규모의 주요 문학상, 신춘문에 입상자 나. 고등학교 재학 중 국제 올림피아드 참가자, 국내 올림피아드 입상자 [자연계] 가. 수학과 과학 관련 교과를 35단위 이상 이수하고, 평균 등급이 모두 2.5등급 이내인 자(국내고) 나. 학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에 기재된 수학 또는 과학 관련 전문교과가 15단위 이상인 자(국내고) 다. 고교 재학 중 국제 올림피아드 참가자, 국내 올림피아드 입상자	
모집인원	150명(인문 : 25명, 자연 : 125명)	
전형요소	서류 50%	심층면접구술시험 50%
전형방법	1단계 : 서류평가로 심층면접구술시험 대상자 선발 2단계 : 서류평가와 심층면접구술시험으로 합격자 선발	
최저학력기준	인문사회 : 전체 적용, 자연 : 부분 적용(최저학력기준은 수시 2-2차 일반우수자 전형과 동일함)	

●서류평가 : 교과성적, 학생부비교과영역, 추천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05. 음악대학 일반우수자 전형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2009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자 또는 국내 검정고시합격자
모집인원	피아노(10명), 바이올린(3명), 비올라(1명), 첼로(2명), 콘트라베이스(1명)
전형요소	실기시험
전형방법	1단계 : 1차 실기시험 결과로 2차 실기시험 대상자 선발 2단계 : 2차 실기시험 성적으로 합격자 선발
최저학력기준	없음

#### 06. 음악특기자 전형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2009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 후 2년 이내인 졸업자 또는 국내 검정고시합격자(2006년 4월 이후)로서 동양음악 콩쿨 또는 중앙음악 콩쿨 입상자	
모집인원	2명	
전형요소	수상경력 70%	서류 30%
전형방법	일괄합산 전형	
최저학력기준	없음	

●서류평가 : 학생부비교과영역, 추천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07. 체육특기자 전형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2009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자 또는 국내 검정고시합격자(개인종목)로서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단체] 고등학교 재학 중 전국·국제 규모 대회에서 16강 이내에 입상한 팀의 선수 또는 대한체육회에서 우수선수로 추천한 자 [개인] 전국·국제 규모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모집인원	50명	
전형요소	서류, 면접	
전형방법	1단계 : 서류평가로 면접구술시험 대상자 선발 2단계 : 서류평가와 면접구술시험으로 합격자 선발	
최저학력기준	없음	

●서류평가 : 수상경력, 추천서, 자기소개서, 학생부, 기타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수시 2학기 모집 : 수시 2-2차

### 01. 일반우수자 전형

지원자격	국내·외 고등학교 2009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자 또는 국내 검정고시 합격자		
모집인원	966명		
전형요소	학생부		논술
	교과	비교과	
	40%	10%	50%
전형방법	일괄합산 전형		
최저학력기준	[인 문 사 회]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2등급 이내 [자 연]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2개 이상 2등급 이내(단, 수리(가) 또는 과탐 포함) [의예/치의예]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1등급 이내		

- 일반우수자 전형 우선선발  
최저학력기준과 계열별 우선 선발 기준을 만족하는 지원자 중에서 모집인원의 50% 우선 선발(의예/치의예 제외)

우선선발기준	[인 문] 언어영역과 외국어영역 모두 1등급 [사 회] 수리(나)영역과 외국어영역 모두 1등급 [자 연] 수리(가)영역과 과학탐구 중 하나는 1등급, 다른 하나는 2등급 이내
--------	---

우선선발 전형요소	학생부		논술
	교과	비교과	
	16%	4%	80%

### 02.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지원자격	국내·외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2009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자 또는 국내 검정고시합격자로서 다음 해당 분야의 요건을 충족한 자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위선양자, 벽·오지 근무 공무원(일반·교육공무원, 사립교원제외), 직업군인, 국·내외 벽·오지 근무 선교사, 교역자 및 의료봉사자, 환경미화원(구청 소속 별정직 공무원), 다문화가정 자녀		
모집인원	70명		
전형요소	학생부		논술
	교과	비교과	
	40%	10%	50%
전형방법	일괄합산 전형		
최저학력기준	[인 문 사 회]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2등급 이내 [자 연]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2개 이상 2등급 이내(단, 수리(가) 또는 과학탐구 포함) [의예/치의예]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1등급 이내		

### 03. 연세한마음 전형(정원 외 기회균형선발 전형)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2009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자 또는 국내 검정고시합격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자		
모집인원	122명		
전형요소	학생부		논술
	교과 40%	비교과 10%	
전형방법	일괄합산 전형		
최저학력기준	[인 문 사 회]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2등급 이내 [자 연]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2개 이상 2등급 이내(단, 수리(가) 또는 과학탐구 포함) [의예/치의예]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1등급 이내		

### 04. 언더우드국제대학 전형

지원자격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2006년 9월 이후), 졸업예정자 또는 국내 검정고시합격자(2006년 4월 이후)로서 지정기간 내에 응시한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할 수 있는 자	
모집인원	언더우드학부(인문사회) : 10명, 언더우드학부(공학) : 15명	
전형요소	서류 60%	영어면접구술시험 40%
전형방법	1단계 : 서류평가로 영어면접구술시험 대상자 선발 2단계 : 서류평가와 영어면접구술시험으로 합격자 선발	
최저학력기준	없음	

- 서류평가 : 교과성적, 학생부비교과영역, 추천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수시모집 교과성적 반영방법

	구분	내용
반영교과 및 반영방법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관련 과목	과목별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석차백분율을 계산하여 적용(단, 조기졸업자 전형에서는 사회 관련 과목 제외)
	위 외의 과목	과목별 등급이 9등급인 경우에 한하여 일정 점수 감점
학년별 반영비율	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	1학년(20%) + 2학년(40%) + 3학년(40%)
	조기졸업예정자	1학년 1학기(20%) + 1학년 2학기(40%) + 2학년 1학기(40%)

## >> 정시모집

### 01. 『가』군 일반 전형

####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구분		학생부			수능	논술
		교과	비교과	출석		
『가』군	인문	40%	5%	5%	40%	10%
	자연	40%	5%	5%	50%	-
『가』군 (우선선발)	공통	-	-	-	100%	-

- 교과성적 반영방법에 관한 내용은 추후 공지할 예정임
- 우선선발: 전 모집단위에서 수능성적으로 모집인원의 50%를 우선 선발(예체능계열 제외)

#### 2) 수능 반영 영역 및 반영비

구분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가)형	(나)형		사회 <sup>2)</sup>	과학 <sup>3)</sup>
인문 <sup>1)</sup>	1	-	1	1	0.5	-
사회	1	-	1	1	0.5	-
자연	1	1.5	-	1	-	1.5

- 1) 인문계열(인문학부, 외국어문학부)에는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반영함
- 2) 사회탐구: 4과목 응시, 3과목 반영
- 3) 과학탐구: 과학 I, II(동일과목) + 2과목(4과목 응시, 3과목 반영)

### 02. 『나』군 공학계열 전형

####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구분	학생부			수능
	교과	비교과	출석	
『나』군 공학계열	20%	-	-	80%
『나』군 공학계열 (우선선발)	-	-	-	100%

- 우선선발: 『나』군 공학계열 전 모집단위에서 수능성적으로 모집인원의 50%를 우선 선발함

#### 2) 수능 반영 영역 및 반영비

구분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sup>1)</sup>
『나』군 공학계열	1	1.5	1	1.5

- 1) 과학탐구: 과학 I, II(동일과목) + 2과목(4과목 응시, 3과목 반영)

### 03. 『가』군 체육계열 전형

####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구분	학생부			수능	실기	면접
	교과	비교과	출석			
체육교육학과	25%	5%	5%	40%	20%	5%
사회체육학과	20%	3%	7%	55%	15%	-

## 2) 수능 반영 영역 및 반영비

구분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sup>1)</sup>
		(가형/나형)		사회탐구/과학탐구
체육교육학과	1	1	1	0.5
사회체육학과	1	1	1	0.5

1) 사회탐구/과학탐구 : 2과목 응시, 2과목 반영

## 04. 『나』군 음악대학 전형

###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최종 단계)

구분	학생부		수능	실기
	교과	출석		
음악대학	8%	2%	20%	70%

• 음악대학(교회음악과, 성악과, 기악과, 작곡과)의 전형방법은 전공별로 상이하므로 추후 발표되는 모집요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2) 수능 반영 영역 및 반영비

구분	언어	외국어
음악대학	1	1

## 05. 특별 전형

###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	학생부			수능
	교과	비교과	출석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40%	5%	5%	50%
전문계고교출신자 특별전형	40%	5%	5%	50%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40%	5%	5%	50%

• 전형요소 및 전형요소별 배점 비율은 일반전형에 준하여 적용함

### 2) 수능 최저학력기준

구분	기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인 문 사 회]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2등급 이내
	[자 연]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2개 이상 2등급 이내(단, 수리(가) 또는 과학탐구 포함)
	[의예/치의예]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1등급 이내
전문계고교출신자 특별전형	[체 육]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중 3개 이상 3등급 이내
	[인 문 사 회]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2등급 이내
	[자 연]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2개 이상 2등급 이내(단, 수리(가) 또는 과학탐구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인 문 사 회]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2등급 이내
	[자 연]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2개 이상 2등급 이내(단, 수리(가) 또는 과학탐구 포함)
	[의예/치의예]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1등급 이내
	[체 육]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중 3개 이상 3등급 이내

• 전문계고교출신자 특별전형 지원자는 탐구영역에서 직업탐구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과목 선택은 자유선택 3과목임

# 원주캠퍼스 입학전형 안내

전형관련 세부 사항과 정확한 내용은 모집요강에서 최종 확인하기 바랍니다.

## >> 전형별 모집인원

시기		전형	모집인원	비고	
수시 2	2-1차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306명		
		조기졸업자 전형	약간명		
		영어능력우수자 전형	90명		
		특기자 전형	36명		
		동아시아국제학부 전형	25명	모집시기 변경	
	2-2차	일반우수자 전형	458명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26명		
		지역고교우수자 전형	학교장 추천	38명	모집시기 변경
			광역자치단체장 추천	12명	
		연세한마음 전형	30명	신설, 정원 외	
정시	일반 전형	307명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61명	정원 외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5명	정원 외		
	전문계고교출신자 특별전형	45명	정원 외		

●모집인원은 추후 변경가능하니 모집요강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 >> 수시 2-1차 모집

### 01.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지원자격	국내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2009년 2월 졸업예정자)		
모집인원	306명		
전형요소	학생부		
	교과 90%		비교과 10%
전형방법	일괄합산 전형		
최저학력기준	적용, 39쪽 참고		

### 02. 조기졸업자 전형

지원자격	국내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2009년 2월 졸업 예정자)으로 2학년 1학기까지 학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에 기재된 수학과 과학 교과의 이수단위 합계가 43단위 이상인 자		
모집인원	약간명		
전형요소	교과 30%	서류 30%	심층면접구술시험 40%
	1단계 : 교과와 서류평가로 심층면접구술시험 대상자 선발 2단계 : 교과, 서류평가 및 심층면접구술시험으로 합격자 선발		
최저학력기준	없음		

●서류평가 : 추천서, 자기소개서, 학생부비교과영역, 기타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03. 영어능력우수자 전형

지원자격	국내(일반계)·국외 고등학교 2009년 2월 졸업 예정자 및 졸업 후 2년 이내인 졸업생으로 지정기간 내에 응시한 공인영어 시험에서 TOEFL 550점(PBT), 213점(CBT), 79점(IBT), TOEIC 800점, TEPS 750점 이상의 점수를 하나 이상 취득한 자		
모집인원	90명		
전형요소	교과 30%	서류 30%	영어면접구술시험 40%
전형방법	1단계 : 교과와 서류평가로 영어면접구술시험 대상자 선발 2단계 : 교과, 서류평가 및 영어면접구술시험으로 합격자 선발		
최저학력기준	없음		

●서류평가 : 추천서, 자기소개서, 학생부비교과영역, 기타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04. 특기자 전형

지원자격	국내·외 고등학교 2009년 2월 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2년 이내인 졸업자 또는 국내 검정고시 합격자(2006년 4월 이후)로서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인문사회계] 가. 전국 규모의 주요 문학상, 신춘문예 입상자 나.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대회 수상자 다. 고교 재학 중 국제 올림피아드 참가자, 국내 올림피아드 입상자 [자연계] 가. 수학과 과학 관련 교과를 35단위 이상 이수하고, 평균 등급이 모두 3.5등급 이내인 자 나. 학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에 기재된 수학 또는 과학 관련 전문교과가 15단위 이상인 자(국내고) 다. 고교 재학 중 국제 올림피아드 참가자, 국내 올림피아드 입상자		
모집인원	36명(인문 : 10명, 자연 : 26명)		
전형요소	서류 50%	심층면접구술시험 50%	
전형방법	1단계 : 서류평가로 심층면접구술시험 대상자 선발 2단계 : 서류평가와 심층면접구술시험으로 합격자 선발		
최저학력기준	인문사회 : 전체 적용, 자연 : 부분 적용 (39쪽 참고)		

●서류평가 : 교과성적, 학생부비교과영역, 추천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05. 동아시아국제학부 전형

지원자격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2년 이내), 졸업예정자(3학년) 또는 국내 검정고시합격자(2006년 4월 이후)로서 지정기간 내에 응시한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할 수 있는 자		
모집인원	25명		
전형요소	서류 60%	영어면접구술시험 40%	
전형방법	1단계 : 서류평가로 영어면접구술시험 대상자 선발 2단계 : 서류평가와 영어면접구술시험으로 합격자 선발		
최저학력기준	없음		

●서류평가 : 교과성적, 학생부비교과영역, 추천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수시 2-2차 모집

### 01. 일반우수자 전형

지원자격	국내·외 고등학교 2009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자 또는 국내 검정고시 합격자		
모집인원	458명		
전형요소	학생부		논술
	교과 40%	비교과 10%	
전형방법	일괄합산 전형		
최저학력기준	적용, 39쪽 참고		

### 02.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지원자격	국내·외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2009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자 또는 국내 검정고시합격자로서 다음 해당 분야의 요건을 충족한 자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위선양자, 벽·오지 근무 공무원(일반·교육공무원, 사립교원제외), 직업군인, 국·내외 벽·오지 근무 선교사, 교역자 및 의료봉사자, 환경미화원(구청 소속 별정직 공무원), 다문화가정 자녀		
모집인원	26명		
전형요소	학생부		논술
	교과 40%	비교과 10%	
전형방법	일괄합산 전형		
최저학력기준	적용, 39쪽 참고		

### 03. 지역고교우수자 전형

지원자격	[학교장 추천자]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일반계)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3학년 재학생(2009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졸업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광역자치단체장 추천자]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일반계)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3학년 재학생(2009년 2월 졸업예정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광역자치단체장 추천을 받은자		
모집인원	학교장 추천자 : 38명, 광역자치단체장 추천자 : 12명		
전형요소	학생부		논술
	교과 40%	비교과 10%	
전형방법	일괄합산 전형		
최저학력기준	* 의예과 지원자에게만 해당		
	[학교장 추천자]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1등급 이내 [광역자치단체장 추천자]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2개 이상 1등급 이내(단, 수리(가) 또는 과탐 포함)		

●서류평가 : 추천서, 자기소개서, 학생부비교과영역, 기타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04. 연세한마음 전형(정원 외 기회균형선발전형)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2009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자 또는 국내 검정고시합격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자		
모집인원	30명		
전형요소	학생부		논술
	교과	비교과	
	40%	10%	50%
전형방법	일괄합산 전형		
최저학력기준	적용, 39쪽 참고		

#### ○ 수시모집 최저학력기준 안내

전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성적우수자 전형</li> <li>· 일반우수자 전형</li> <li>·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li> <li>· 연세한마음 전형</li> </ul>	[인문사회계, 보건계열(인문), 간호학과(인문)]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탐구 영역 중 2개 이상 3등급 이내 또는 1개 이상 2등급 이내 [의공학부, 보건계열(자연), 간호학과(자연)]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2개 이상 3등급 이내 또는 1개 이상 2등급 이내 [자연계열, 공학계열(컴퓨터정보통신학부, 환경공학부), 치위생학과]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1개 이상 3등급 이내 [의예]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1등급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기자 전형</li> </ul>	[인문]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탐구 영역 중 1개 이상 3등급 이내 [자연] 수리(가) 또는 과학탐구 영역 중 1개 이상 3등급 이내

#### ○ 수시모집 교과성적 반영방법

	구분	내용
반영교과 및 반영방법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관련 과목 위 외의 과목	과목별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석차백분율을 계산하여 적용 (단, 조기졸업자 전형에서는 사회 관련 과목 제외)
학년별 반영비율	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 조기졸업예정자	1학년(20%) + 2학년(40%) + 3학년(40%) 1학년 1학기(20%) + 1학년 2학기(40%) + 2학년 1학기(40%)

### >> 정시모집

#### 01. 「가」·「나」군 일반 전형

#####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구분	학생부			수능
	교과	비교과	출석	
「가」군·「나」군	40%	5%	5%	50%
「가」군·「나」군 (우선선발)	-	-	-	100%

- 교과성적 반영방법에 관한 내용은 추후 공지할 예정임
- 우선선발 : 전 모집단위에서 수능성적으로 모집인원의 50%를 우선 선발함

2) 정시 모집 수능 반영 영역 및 반영비

구분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가)형	(나)형		사회 <sup>1)</sup>	과학 <sup>2)</sup>
인문	1	-	-	1	0.5	-
사회	1	-	1	1	0.5	-
자연	-	1.5	-	1	-	1.5
의예	1	1.5	-	1	-	1.5

1)사회탐구 : 3과목 응시, 3과목 반영

2)과학탐구 : 3과목 응시, 3과목 반영 [단, 의예과는 과학 1, II(동일과목) + 2과목(4과목 응시, 3과목 반영)]

02. 「나」군 디자인학부 전형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구분	학생부			수능	실기
	교과	비교과	출석		
「나」군 디자인학부 (예체능)	20%	2.5%	2.5%	37.5%	37.5%

2) 수능 반영 영역 및 반영비

구분	언어	외국어
「나」군 디자인학부	1	1

03. 특별 전형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	학생부			수능
	교과	비교과	출석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40%	5%	5%	50%
전문계고교출신자 특별전형	40%	5%	5%	50%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40%	5%	5%	50%

•전형요소 및 전형요소별 배점 비율은 일반전형에 준하여 적용함

2) 수능 최저학력기준

전형	기준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인문]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탐구 영역 중 1개 이상 3등급 이내 [자연]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1개 이상 3등급 이내 [의예]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1등급 이내
· 전문계고교출신자 특별전형	[인문]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탐구 영역 중 1개 이상 3등급 이내 [자연]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1개 이상 3등급 이내

•전문계고교출신자 특별전형 지원자는 탐구영역에서 직업탐구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과목 선택은 자유선택 3과목임

04. 기타

1) 정시모집은 「가」군 50%, 「나」군 50% 선발

(단, 의예과, 디자인학부(인문/자연), 간호학과(인문), 작업치료(인문), 물리치료(인문)는 「가」군에서만 선발하고 디자인학부(예체능), 간호학과(자연), 작업치료(자연), 물리치료(자연)는 「나」군에서만 선발함)

2) 디자인학부, 간호학과 모집 시기별 모집 인원

- 디자인학부, 작업치료, 물리치료 : 「가」군에서 50%, 「나」군에서 50% 선발
- 간호학과 : 「가」군에서 30%, 「나」군에서 70% 선발

## FAQ

### >> 수시모집

**Q** 수시 2학기의 수시 2-1차와 수시 2-2차 모집 전형[예 : 글로벌리더와 언더우드국제대학(UIC) 전형]에 복수지원이 가능합니까?

**A** 수시 2-1차와 수시 2-2차는 원서 접수시기는 같지만 시험일자가 다르므로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수시 2-1차 또는 수시 2-2차 내의 전형에는 복수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시 2-1차에서 실시하는 교과성적우수자 전형과 특기자 전형에는 복수지원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수시 2-1차에서 실시하는 글로벌리더 전형과 수시 2-2차에 실시하는 언더우드국제대학(UIC) 전형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Q** 졸업생이 지원할 수 없는 전형이 있습니까?

**A** 수시 1학기 모집의 연세인재육성프로그램전형, 수시 2-1차의 교과성적우수자 전형과 조기졸업자 전형은 고교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시 2-1차의 특기자 전형, 글로벌리더 전형, 동아시아국제학부 전형(원주), 수시 2-2차의 언더우드국제대학 전형, 영어능력우수자 전형(원주), 지역고교우수자 전형(원주)은 모두 삼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수시 2-2차의 일반우수자 전형,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연세 한마음 전형은 졸업연도에 대한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Q** 국내 검정고시 출신자가 지원 가능한 전형은?

**A** 수시 1학기 언더우드국제대학 전형, 수시 2-1차 특기자 전형, 동아시아국제학부 전형(원주), 음악대학 일반우수자 전형과 체육특기자 전형의 개인종목에 한하여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시 2-2차에 포함되는 모든 전형은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Q** 해외고 출신자가 지원 가능한 전형은?

**A** UIC 전형, 수시 2-1차의 글로벌리더 전형, 특기자 전형, 영어능력우수자 전형(원주), 동아시아국제학부 전형(원주), 수시 2-2차의 일반우수자 전형,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지원 가능합니다. 단,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해당 전형에서 제시하는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Q** 지원자격에서 공인영어성적을 요구하는 경우, 성적의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A** 공인영어성적을 지원자격으로 제출해야하는 전형의 경우, 공인영어시험 응시기간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습니다.

수시 1학기 지원자 : 2006. 7. 14 ~ 2008. 5. 18

수시 2학기 지원자 : 2006. 9. 8 ~ 2008. 7. 12

**Q**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교과성적은 어떤 방식으로 반영합니까?

**A** 2008년 졸업자 및 2009년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학생부에 기재된 교과성적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우리대학에서 정한 환산 백분율을 적용합니다. 2007년 졸업생의 경우에는 과목별 석차(동석차 적용)와 수강인원을 적용한 석차백분율을 이용합니다.

**Q** 학생부 반영 교과목은 작년과 동일합니까?

**A** 학생부의 반영교과목과 학년별 반영 비율은 모두 작년과 동일합니다.

**Q** 비교내신 대상자는 어떻게 비교내신을 반영하게 됩니까?

**A** 수시모집 일반우수자,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연세한마음 전형에서 기본적으로 학생부를 이용하여 교과성적과 비교교과성적을 평가할 수 없는 지원자는 전원 비교내신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국내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지원자(삼수생까지)들이 학생부에 의한 교과, 비교교과 평가를 받게 되며, 이들을 제외한 지원자는 기본적으로 비교내신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경우라도 연속해서 2학기 이상의 학생부 성적이 누락된 경우에는 비교내신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비교내신은 자신이 지원한 모집단위 지원자들의 논술성적을 이용하여 평가합니다. 그 이외의 특별전형은 비교내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수시모집 일반우수자 전형에서 학생부 비교과영역은 학생부에 기재된 사항만 반영한다고 하는데 재수생인 경우 고교졸업 이후의 것으로 제출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검정고시와 해외고 출신자는 어떻게 평가 받습니까?

**A** 비교과영역에 대한 평가는 학생부에 기재된 사항만을 평가하므로 고교졸업 이후에 취득한 서류라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부가 없는 지원자는 비교내신을 적용하므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반영되는 전형은?

**A** 수시 2-1차의 교과성적우수자 전형과 특기자 전형(인문사회계 전체 적용, 자연계 부분 적용), 수시 2-2차의 일반우수자 전형,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지역고교우수자 전형(원주, 의예과만 적용), 연세한마음 전형입니다.

**Q** 서울 캠퍼스 수시 2-2차 일반우수자 전형의 우선선발은 별도로 지원합니까?

**A** 별도의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일반우수자 전형에 지원하면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50%를 학생부 20%와 논술 80%로 우선선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만족하는 지원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지원자에 대하여 우선선발하게 됩니다. 인문계는 언어와 외국어 영역이 모두 1등급 이내, 사회계는 수리(나)와 외국어 영역이 모두 1등급 이내, 자연계(의예·치예에 제외)는 수리(가)와 과탐영역 중 한 영역은 1등급이고 다른 한 영역은 2등급 이내이어야 합니다. 우선선발 되지 않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학생부 50%와 논술 50%로 선발됩니다.

## >> 정시모집

**Q** 비교내신 대상자는 작년과 같이 삼수생 이상의 졸업생입니까? 아니면 재수생도 비교내신이 반영됩니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비교내신을 반영하게 됩니까?

**A** 비교내신은 작년과 같이 삼수생 이상의 졸업생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비교내신 반영 방법은 작년과 동일하며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2007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
- ② 공업계 2+1, 일반고교 직업과정위탁생 졸업(예정)자
- ③ 교과교육 소년원 고교과정 이수자
- ④ 국내 고등학교 성적이 6학기 중 3학기 이상 없는 자
- ⑤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학교생활기록부로 석차등급을 평가할 수 없는 자
- ⑥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Q** 정시모집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반영됩니까?

**A** 일반전형은 반영되지 않으며 특별전형(농어촌학생, 전문계고교출신자,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전문계고교출신자는 전년도와 같이 직업탐구도 가능함).

캠퍼스	계열	최저학력기준	탐구영역 판정기준
서울	인문계열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2등급 이내	사회탐구 4개의 응시과목 중 상위 2개 과목 평균등급이 2등급 이내
	자연계열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2개 이상 2등급 이내 (2등급 이내 영역에는 수리(가) 또는 과학탐구 영역이 포함되어야 함)	과학탐구 4개의 응시과목 중 상위 2개 과목 평균등급이 2등급 이내
	의예과, 치의예과 (전문계는 해당 없음)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1등급 이내	과학탐구 4개의 응시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1등급 이내
	체육계열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중 3개 이상 3등급 이내	탐구 4개의 응시과목 중 상위 2개 과목 이상 3등급 이내
원주	인문계열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탐구 영역 중 1개 이상 3등급 이내	사회탐구 3개 이상의 응시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3등급 이내
	자연계열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1개 이상 3등급 이내	과학탐구 3개 이상의 응시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3등급 이내
	의예과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1등급 이내	과학탐구 4개의 응시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1등급 이내

**Q** 일반전형의 우선선발 방법은 인문과 자연계 모두 공통입니까?

**A** 예·체능계 모집단위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우선선발을 실시합니다.

**Q** 논술시험은 모든 전형에 있습니까?

**A** 서울캠퍼스 일반전형(가,군) 인문사회계열에 한하여 논술시험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우선선발로 합격한 지원자는 논술시험이 없습니다.

**Q** 학생부는 석차등급만으로 반영합니까? 그리고 반영 교과목은 작년과 동일합니까?

**A** 학생부 교과영역에서 인문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군의 교과목, 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군의 교과목을 반영하며, 석차등급으로 반영합니다.

## 연세대학교 논술시험 안내

연세대학교는 '다면사고형 논술'을 통해 수험생의 이해력, 분석력, 창의적 사고력, 표현력 등의 다양한 지적 능력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입학처는 수험생이 '다면사고형 논술' 문제유형을 파악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예시문항을 발표하고 논술 모의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3월에 실시한 논술 모의 시험 문제입니다. 연세대학교의 논술 시험 문제와 출제 경향 등을 파악하면 논술시험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yonsei.ac.kr>)에서 관련 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 인문사회계열

####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십시오. (두 문제 모두 답하십시오)

(가)

개인의 가치판단이 학문적 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그로 인해 끊임없이 혼동이 야기되었으며, 심지어 사실들 간의 간단한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과학적 주장에 다양한 해석들이 개입되기에 이르렀다. [...중략...]

우리가 해결해야 할 현실 문제에 대한 규범적 가치의 공감대를 만드는 것은 결코 경험적 학문의 과제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전혀 무의미하다. 경험적 분석에 근거해서 특정한 문화적 가치를 바람직한 규범으로 도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문화적 가치의 내용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타당한 윤리적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종교뿐이다. [...중략...]

지식의 나무를 먹고 자란 시대에 사는 우리는 세상에 대한 분석 결과로부터 세상의 의미에 대해 아무 것도 배울 수 없는 운명이다. 우리는 경험적 지식이 점점 늘어난다고 해서 인생과 세상만사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판단이 등장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할 점은, 인생과 세상만사에 대한 보편타당한 견해가 경험적 지식이 축적된 결과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중략...] 경험적 지식과 가치판단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진실만을 추구하는 과학적 의무의 이행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다.

(나)

왕건이 궁예의 여러 장수들 중 하나로서 궁예의 은총을 받아 대병(大兵)을 맡게 되자, 드디어 궁예를 쫓아내어 객사(客死)하게 하고 또한 '이신시군(以臣弑君)'의 죄를 싫어하여 전력을 기울여 궁예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죄를 만들어 냈다.

고려의 사관(史官)은 '궁예는 신라 헌안왕(憲安王)의 자식인데, 왕은 그의 생일이 5월 5일임을 미워하여 내다 버렸다. 궁예가 이를 원망하여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쳐서 멸망시키려 하였는데 그는 어느 절에서 벽에 그려져 있는 헌안왕의 초상화까지 칼로 찼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더욱 확실한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궁예가 태어난 뒤에 헌안왕이 엄히 명령을 내려 궁예를 죽이라고 하였는데 궁녀가 누대 위에서 아래로 궁예를 던지니, 아래에서 유모가 받다가 그만 잘못하여 손가락이 그의 한쪽 눈을 찔러 눈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 유모가 비밀히 그를 길러냈는데 그가 10여 세가 되어 장난이 심하였다. 이에 그 유모가 울면서 "왕이 너를 버린 것을 내가 차마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몰래 길렀는데 이제 네가 미친 듯이 멋대로 행동함이 이와 같으니 만일 남이 알면 너와 나는 다 죽을 것이다."고 하니, 궁예가 듣고 울며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중략...]

만약 사관의 말이 맞는다면, 궁예가 비록 헌안왕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가 태어난 날 누대 위에서 죽으라고 던진 날부터 이미 부(父)라는 명의(名義)가 끊어진 것이니, 궁예가 헌안왕의 몸에 직접 칼질을 하더라도 시부(殺夫)의 죄가 될 수 없고, 신라왕의 능(陵)과 도읍을 유린하더라도 조상들을 욕보인 죄를 논할 수 없을 터인데, 하물며 왕의 초상화를 치고 문란한 신라를 혁명하려고 한 것이 무슨 큰 죄나 논란거리가 되겠는가.

그렇지만 고대의 좁은 윤리관으로는 그 두 가지 일 — 헌안왕의 초상화를 칼로 친 일과 신라에 대한 불공(不恭) — 만으로도 궁예에게는 죽어도 남을 죄가 있는 것이니, 죽어도 죄가 남을 궁예를 죽이지 못할 게 무엇이라.

이리하여 왕건은 살아서 고려의 통치권을 가지고 죽어서 태조 문성의 시호를 받았더라도 추호도 부끄러울 게 없게 된 것이니, 이것이 고려의 사관이 구태여 세달사(世達寺)의 일개 걸승(乞僧)이던 궁예를 가져다가 고귀한 신라 황궁의 왕자를 만든 이유일 것으로 생각한다.

(다)

작가는 우선 그의 독자들에게 거짓되지 않은 것, 진실한 것만을 말하고 보여주기로 애초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진실은 무엇보다도 독자들의 삶에 깊이 관계된 것입니다. [...중략...]

그러면 우리들의 그 삶의 진실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물론 행복한 삶에 관한 것입니다. 보다 더 풍족하고 의롭고 정직한 삶에 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다 더 사람다운 삶에 관계하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을 소설로써 고발하는 것, 의롭지 못한 일을 증언하는 것, 우리의 삶을 부당하게 간섭해 오거나 병들게 하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비인간적인 제도와 억압에 대항하여 싸우고 그것들을 이겨나갈 용기를 모색하는 것, 소위 새로운 영혼의 영토를 획득해 나가고 획득된 영토를 수호해 나가려는 데 기여하는 모든 문학적 노력이 중국에는 다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운택하고 행복스럽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삶의 진실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가가 그의 작품으로 그런 삶의 진실을 위해 싸우는데 독자가 그것을 배척하고 외면할 리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관련하여 가장 깊고 큰 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가장 삶다운 삶으로 돌아가 살게 하는 옳은 질서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평론가 한 사람은 우리의 삶을 삶답지 못하게 하는 모든 비인간적인 풍습과 제도와 문물과 사고를 통틀어 우리 삶을 '억압' 하는 것들이라고 표현한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 삶이 그 억누름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삶, 본래의 자유롭고 화창한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질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유의 질서입니다. 이 자유의 질서야말로 우리의 가장 크고 깊은 삶의 진실이 아닐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라)

아래 표는 미국의 언어학자인 촘스키가 미국의 주요 신문들이 국가 간 분쟁에 대해 <대량학살 genocide>이라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나를 비교한 것이다. (분석의 대상이 된 주요 신문은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타임> 등이다.)

공격국가	피공격국가	사실/칼럼	뉴스 기사
세르비아(1998-99)	코소보	59	118
인도네시아(1990-99)	동티모르	7	17
터키(1990-99)	쿠르드	2	8
이라크(1990-99)	쿠르드	51	66
미국(1991-99)	이라크	1	10

**문제1. 제시문 (가), (나), (다)의 주장을 비교하고 제시문 (가)의 주장이 타당한지 따져보시오. (60점)(1,500자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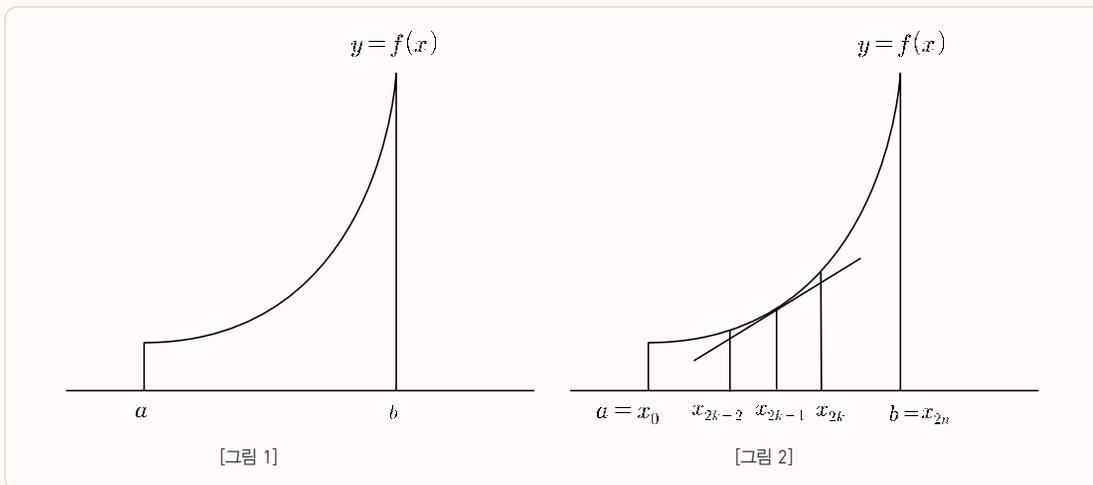
**문제2. 제시문 (라)의 표를 제시문 (가), (나), (다)의 주장과 관련지어 해석해보시오. (40점)(1,000자 내외)**

●인문사회계열의 논술문제는 경우에 따라 2문제 혹은 3문제가 출제 될 수 있습니다.

## >> 자연계열

### 문제1.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함수  $f(x)$ 의 도함수  $f'(x)$ 가 폐구간  $[a, b]$ 에서 연속이고,  $y = f(x)$ 의 그래프가 [그림 1]과 같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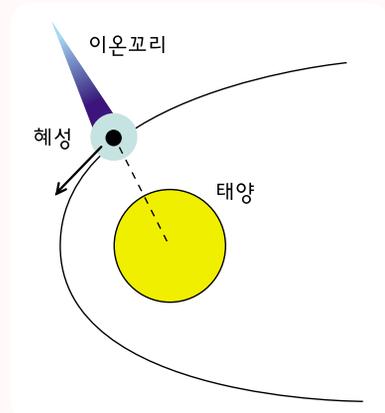
[1-1] 곡선  $y = f(x)$  위의 점  $(a, f(a))$  부터 점  $(b, f(b))$  까지의 곡선의 길이를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10점)

[1-2] [그림 2]는 [그림 1]의 폐구간  $[a, b]$ 를  $2n$ 개의 균등한 소구간으로 나눈 그래프이다. 이때, 점  $(x_{2k-1}, f(x_{2k-1}))$ 에서의 접선의 식을  $y = g_k(x)$ 라 하자. 접선 위의 점  $(x_{2k-2}, g_k(x_{2k-2}))$ 와 점  $(x_{2k}, g_k(x_{2k}))$ 사이의 거리를  $l_k$ 라고 할 때  $\lim_{n \rightarrow \infty} \sum_{k=1}^n l_k$ 의 값을 구하시오. (20점)

[1-3] 위의 [1-1]과 [1-2]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1-1]과 같은 결론을 유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하여 논하시오. (10점)

**문제2.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30점)**

가. 혜성은 주로 먼지와 얼음 등으로 구성된 작은 천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혜성은 장축과 단축의 비가 매우 큰 타원궤도로 태양을 공전하며, 원일점(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은 명왕성 궤도보다 훨씬 더 바깥쪽에 놓일 때도 있다. ‘더러운 얼음 덩어리’라고도 불리는 혜성의 구조는 크게 핵, 코마, 꼬리로 이루어져있다. 혜성이 근일점(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접근하면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복사열에 의하여 혜성의 바깥층을 형성하는 얼음 덩어리 등이 증발하여, 핵 주위에 먼지와 기체로 둘러싸인 코마를 형성하게 된다. 핵의 크기는 수십  $km$  정도로 작은 데 비해, 핵을 에워싸며 밝게 빛나는 코마는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핵의 1만 배가 넘는 크기로 자라면서 지구에서 관측이 가능하게 된다. 이때 핵을 둘러싼 먼지와 기체는 태양풍과 태양으로부터의 복사압에 의해 뒤로 밀려나면서 혜성의 꼬리를 형성한다. 혜성의 꼬리는 이온꼬리와 먼지꼬리로 나누어진다. 이온꼬리는 푸른빛으로 그림과 같이 항상 태양의 반대 방향에 나타나고, 먼지꼬리는 노란색 또는 약한 붉은색을 띄며 이온꼬리와는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그림에서 생략).



나. 먼지꼬리를 구성하는 먼지에는 태양과 먼지 사이의 만유인력  $F_G$ 와 태양의 복사압에 의한 밀치는 힘  $F_R$ 이 작용한다. 예를 들어, 반지름이  $a$ 이고 질량이  $m$ 인 구형 먼지의 경우, 위의 두 힘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F_R = \frac{P_S A}{4\pi cr^2} \quad F_G = G \frac{M_S m}{r^2}$$

위 식에서  $P_S$ 는 태양이 1초당 방출하는 전체 복사에너지의 양이며,  $A = \pi a^2$ 는 먼지의 단면적,  $c$ 는 빛의 속도,  $G$ 는 만유인력 상수,  $M_S$ 는 태양의 질량,  $r$ 은 태양과 먼지 사이의 거리이다. 위의 두 힘이 먼지의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반지름을 갖는 먼지로 구성된 먼지꼬리의 형태를 이해할 수 있다. (단, 현상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먼지꼬리를 구성하는 개별 먼지는 구형이며 밀도는  $\rho$ 로 일정하고 반지름만 다양하다고 가정한다.)

[문제 2-1] 위 식에서 힘  $F_R$ 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에 대한 물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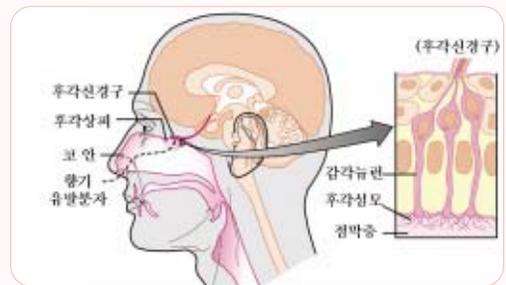
[문제 2-2] 먼지에 미치는 힘의 합이 0이 되는 경우의 먼지의 반지름  $a_0$ 를 위의 변수들을 이용하여 표현하고, 먼지의 반지름이  $a_0$ 에 비하여 큰 경우와 작은 경우 먼지가 받는 힘과 운동에 대하여 논하시오. (13점)

[문제 2-3] 위에서 구한 먼지가 받는 힘과 운동의 차이에 근거하여 형성되는 먼지꼬리의 형태를 그림을 그려 설명하고, 먼지꼬리 내의 먼지의 반지름 분포에 대하여 논하시오. (7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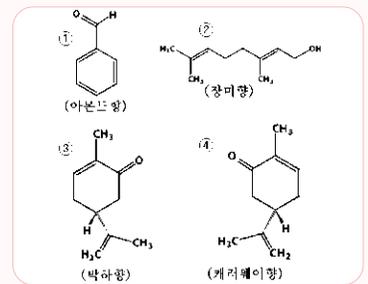
**문제3.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가) 최근에 영화로도 만들어진 독일 작가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원작 소설 '향수'를 보면 '장 바티스트 그르누이'라는 사악한 천재가 나온다.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이 소설의 주인공 그르누이는 극히 예민한 후각을 타고난 냄새의 천재로 세상의 모든 냄새를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모든 냄새를 소유하고 지배하고자 최상의 향수를 만들려고 한다. 이를 위해 그르누이는 가장 좋은 체취를 얻기 위해서 25명의 아름다운 여성들을 살해하게 된다. 결국 그르누이는 그 죄과가 드러나게 되고 파리의 골목길에서 29살의 나이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나) 우리 인간은 평균적으로 4000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향기를 감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코 안의 상피조직에는 100만 여개의 감각뉴런(신경세포)이 분포되어 있고, 감각뉴런의 바닥에는 다수의 후각섬모가 돌출되어 있다[그림 참조]. 후각섬모 표면에는 향기 유발 분자를 인지할 수 있는 '후각 수용체'라는 단백질 분자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각 감각뉴런마다 한 가지 종류의 후각 수용체가 발현된다고 알려져 있다. 향기 유발 분자는 여러 종류의 후각 수용체를 자극할 수 있고, 자극의 강도는 수용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 인간은 평균적으로 350여개의 후각 수용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종류의 수용체 분자를 보유한 각각의 감각뉴런들은 뇌의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세포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다) 분자간 상호작용은 분자의 삼차원 구조, 작용기의 종류와 위치, 전자밀도 분포 등 다양한 구조-전기적 특성에 의해 그 세기와 본질이 달라진다. 중성분자의 분자간 상호작용에는 쌍극자-쌍극자 및 쌍극자-유도쌍극자 상호작용, 분산력, 수소결합 등이 있으며, 여러 개의 상호작용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 단백질은 거대 생체분자로서 매우 복잡한 삼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수용체 분자의 '결합자리(반응중심)'에는 향기 유발 분자들을 선택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세부구조를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는 향기 유발 분자의 예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문제 3-1] 제시문 (다)에서 언급된 향기 유발 분자들의 구조-전기적 특성으로부터 예상되는 향기 유발 분자와 후각 수용체간의 상호작용을 비교 설명하고, 후각 수용체 유전자수에 비해 10배 이상의 향기를 감지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근거를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3-2] 최근에 인간의 후각시스템의 원리를 이용하여 음식의 향기를 탐지할 수 있는 휴대용 '전자코'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후각시스템의 원리에 입각하여 선택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향기의 종류와 검출감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 전자코'를 제안하시오[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 (10점)

# 연세대학교 장학제도 안내

## 01. 2007학년도 장학금 지급 현황(학부)

구 분	수혜인원(명)	수혜금액(원)	장학금 종류
학교 장학금	13,803	22,885,735,012	16
기탁기금 장학금	449	788,131,793	317
교외 장학금	4,558	16,939,968,940	332
합 계	18,810	40,613,835,745	665

## 02. 신입생 장학금 지원안내

연세대학교는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장학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09학년도 신입생 장학금 종류와 선발 및 지급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단, 장학금 계속지급은 우리 대학교 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름).

### 가. 서울캠퍼스

장학금 명칭	장학금액 및 조건	선발기준
연세 우수학생육성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8학기</li> <li>· 매월 교재비(학부 : 30만원, 대학원 : 40만원)</li> <li>· 기숙사비 전액 지원</li> <li>· 교환학생 경비 지원 : 500만원</li> <li>· 유럽체험학습 : 1학년 여름방학 중</li> <li>· 유학정착금 지원 : 500만원</li> <li>· 개인 지도교수 및 전담 학사지도사 배정, 학술동아리 지원, 우수학생 육성을 위한 다수의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세인재육성프로그램 전형 합격자</li> <li>· 선발인원 : 20명(예체능계열·의예과·치의예과·간호학과 제외)</li> </ul>
연세독수리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8학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시 우선선발 합격자 중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이내(예체능계열·의예과·치의예과·간호학과 제외)</li> </ul>
정시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8학기</li> <li>· 교환학생 파견 시 1년간 1천만원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발인원 : 정시모집 경영계열 및 상경계열 각 5명</li> <li>· 정시 우선선발 합격자 중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상위 25% 이내(선발 후 여석이 있을 경우 정시 일반선발 합격자 중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상위 25%이내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에 해당하며, 가정 형편이 어렵고 진취적인 성향을 가진 학생</li> </ul>
경영대학 · 우수신입생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8학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시 우선선발 합격자 중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 범위내</li> </ul>
공과대학 · 우수신입생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8학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시 우선선발 합격자 중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 범위내에서 별도의 심사에 의해 선발</li> </ul>

장학금 명칭		장학금액 및 조건	선발기준
정시 모집	연론홍보영상학부 · 우수신입생 장학금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2학기	· 정시 우선 선발 합격자 중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10% 범위
	신과대학 · 우수신입생 장학금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8학기	· 정시 우선선발 합격자 중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5% 범위내
	생활과학대학 · 최이순지도자장학금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8학기	· 정시 우선선발 합격자 중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5% 범위내
수시모집	· 연세한마음 장학금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8학기 · 학기당 도서비 지급	· 수시 2학기 '연세한마음 전형' 입학자
기타	· 세라믹공학과 동문회 장학금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8학기	· 선발인원 : 매년 입학정원의 20% 내외 ·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세라믹공학과 동문회 기준, 입학 후 선발)

나. 원주캠퍼스

장학금 명칭	장학금액 및 조건	선발기준
동아시아국제학부(EIC) 장학금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8학기	· 입학성적 상위 15% 이내인 학생 · 합격자 중 수능성적(3개 영역 이상 1등급)을 제출한 학생 · 외국인 우수 학생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4학기	· TOEIC 940점 이상, TOEFL(CBT) 270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인 영어 능력 접수가 있는 경우
우수신입생 장학금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8학기	· 정시모집(정원내)에서 수능 필수 응시영역이 모두 2등급 이내인 재원주의예과 제외) 중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 3% 범위 내에서 선발

### 03. 장학금 종류

구분	장학금 종류	내 용
신입생	연세우수학생 장학금	연세인재육성프로그램 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 기숙사비, 교재비를 지급하고 특별 관리 및 육성 지도함
	연세독수리 장학금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이내에서 선발(정시모집 정원내 최초합격자에 한함)하며 8학기 동안의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을 지급
	단과대학 장학금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이내에서 선발(정시모집 정원내 최초합격자에 한함)하며 8학기 동안의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을 지급
	연세한마음 장학금	연세한마음 전형에 합격한 학생이 차상위계층까지 수혜요건 유지 시 정부장학금과 등록금의 차액을 지급
	교외장학금	이공계무상국가장학금 지급(수학, 과학 우수자에게 8학기, 전액) (※ 상세 내용은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재학생	일반장학금 (대학배정장학금)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50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진리장학금(성적우수)과 자유장학금(가계곤란)으로 구분하여 등록금 전액, 반액, 1/3액 등으로 차등지급
	연세동문회 장학금	기초학문 분야의 신입생 또는 국가고시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 및 교재비(월50만원)를 지급
	국가고시장학금	재학 중 사법, 행정, 외무, 기술고등고시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의 1차 합격자와 공인회계사, 변리사 최종 합격자에게는 국가고시장학금(80만원)을 합격한 다음 학기에 1회에 한하여 지급
	국가유공장학금	국가유공대상자 본인에게는 성적에 관계없이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급. 또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 2.00 이상,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학업성적 1.60 이상인 학생에게 입학금, 등록금의 반액을 지급하며, 나머지 반액은 국가보훈처와 통일부에서 지급
	근로장학금	교내 각 부서에 배치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에게 일정액을 지급
	연세복지장학금	교직원의 직계자녀로서 학업성적 2.00 이상인 학생에게 지급
	총학생회 생협장학금	생활협동조합에서 매학기 출자하는 장학금으로서 학업성적 2.50 이상이고 생협에 출자하였으며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에게 지급
	봉사장학금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 기구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발전(학생활동)에 기여하는 학생에게 일정액을 지급
	평화장학금	연세춘추 기자 및 연세대학교 교육방송국 기자로 종사하는 학생에게 일정액을 지급
	신학장학금	신과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장차 목회를 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지급
	우수선수장학금	우수선수에게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
	기금장학금	동문, 개인 독지가의 기금에 의하여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270여 종이 있음
	교외장학금	이공계무상국가장학금, 후배사랑장학금, 이종환장학재단 등 교외 장학재단과 개인으로부터 학교의 추천이나 장학재단 지정에 따라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170여 종이 있음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서울캠퍼스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 입 학 처 (02)2123-4131  
원주캠퍼스 220-710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234 | 입학관리부 (033)760-2828  
<http://admission.yonsei.ac.kr>